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RATEGY FOR PASTORAL MINISTRY THROUGH SPIRITUAL DIRECTION**

written by

**SANG MOON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Chi Young Kay

---

Jin Ki Hwang

---

Seyoon Kim

February 24, 2007

**A STRATEGY FOR PASTORAL MINISTRY  
THROUGH SPIRITUAL DIRECTIO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MOON LEE**

FEBRUARY 2007

#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 전략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계지영 교수

이 상 문

2007년 2월

## Abstract

A Strategy of Pastoral Ministry through Spiritual Direction

Sang Moon Lee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oday the church's responsibility to teach saints how to have true Christian spirituality is greater than at any other time. The need is so great today because of the crisis of the family, confusion about spirituality, and increasing concern among people seeking their inner self. Spiritual Direction is a strategy of pastoral ministry that focuses on helping saints understand Christian spirituality which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in the Holy Spirit and on leading them to then grow in this relationship with Christ. The purpose of spiritual direction is to discern whether or not a directee's experiences are caused by God's presence and to lead them to become one with God. Pastoral ministry through spiritual direction is a strategy to help those who attend church to grow and become mature saints.

A spiritual director may be called by other names, such as spiritual friend, shepherd of one's soul, doctor of the soul, and mentor. Those who want to grow in their spiritual life have sequential meetings with someone (spiritual director) for centering on God and practicing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direction can be seen in the ministries of Jesus, the prophets, and in the fathers of the desert and religious reformers.

Spiritual direction and counseling have similarities to each other. Counseling, however, centers on problem-solving and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a counselor and a counselee; spiritual direction centers on relationship recovery with God, and it recognizes the Holy Spirit as the first leader above the director

or directee. A spiritual director with a contemplative attitude should lead a spiritual directee to seek God rather than one's desires and should try to listen to a directee's spirit more than the facts of his or her stories.

In contrast to past methods, pastoral ministry through spiritual direction is now more effective than the church member visitation of the past due to changes in lifestyles and the variety of individual needs. In addition, spiritual direction can be utilized in a small group. In sharing time, each member can tell stories of him or herself and receive group spiritual direction from one another. In spiritual discernment it is good for each person to share his spiritual experiences. Spiritual direction can also be applied in worship, education, and committees. In worship, a pastor leads saints to meet God and to change their lives. When the relationship of a teacher and a student is changed to the relationship of a spiritual director and a directee, a student can grow up spiritually. In committee and deacons' meeting, instead of just discussing matters,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ould be changed to include sharing one's spiritual experiences.

Since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secular world is to show people God's love and lead them to God, practices of spiritual direction apply here as well. Church members need to learn to listen carefully to unbelievers' concerns and try to lead them to Christ. A church is to listen carefully to the weak, help the weak in their difficulties, and go with them toward the gracious place of God. A new church member can feel God's love through group spiritual direction in the pasture of the house church.

Theological Mentors: Chi Young Kay, Ph. D.  
Jin Ki Hwang,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섬겨온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깊은 말씀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면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신 김세윤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계지영 박사님과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적 지도에 대해 처음 눈을 뜨게 해 주신 배정웅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목사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기도와 격려로 밀어준 아내에게 무엇으로 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논문이 마쳐지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고 할 수 있다고 오히려 힘을 북돋워 준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이상문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	3
제 1 부 영적 지도의 필요성과 정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기초 .....	4
제 2 장 영적 지도의 필요성 .....	5
제 1 절 목회의 중심이 시대들 따라 변천함 .....	5
제 2 절 영성에 대한 현대인의 목마름 .....	6
1. 영성이란 단어의 유래 .....	6
2. 현대인이 영성을 목마르게 찾는 이유 .....	7
3.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 .....	8
4. 기독교적인 의미의 영성 .....	9
제 3 절 내면의 자아와 영분별에 대한 무지함 .....	11
제 4 절 교회 중심으로서 영적 지도 .....	12
제 3 장 영적 지도의 특성 .....	14
제 1 절 영적 지도의 정의 .....	14
제 2 절 영적 지도의 목적 .....	16
제 3 절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유사점과 차이점 .....	18
1.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유사점 .....	18
2.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차이점 .....	19
제 4 절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 .....	20

제 4 장 영적 지도의 성경적 배경 .....	23
제 1 절 구약-유대교에서의 영적 지도의 예들 .....	23
1. 하나님 .....	23
2. 선지자 .....	25
3. 서기관 또는 랍비 .....	25
4. 지혜자 .....	26
5. 부모 .....	27
제 2 절 신약에서의 영적 지도의 예들 .....	27
1. 예수 그리스도 .....	28
2. 바울 .....	30
제 5 장 교회사 속에서의 영적 지도 .....	32
제 1 절 영적 지도의 역사적 의미 .....	32
1. 교부 시대와 동방 교회의 전통 .....	33
2. 중세 탁발 수도회의 전통 .....	36
가. 프란시스 수도회 .....	36
나. 도미니꼬 수도회 .....	36
3. 근대 영적 지도의 전통 .....	37
가. 칼멜 수도회 .....	37
나. 예수회 전통의 영적 지도 .....	38
다. 개혁주의 안에서 영적 지도 .....	39
제 2 절 영적 지도의 현대적 의미 .....	40
제 6 장 영적 지도의 신학적 기초 .....	42
제 1 절 체험 .....	42
제 2 절 은혜 .....	46
제 3 절 관상 기도 및 관상적 태도 .....	49
제 4 절 공감 .....	51



제 2 부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와의 관계 .....	53
제 7 장	하나님과 쫓지도자의 관계 .....	54
제 1 절	하나님과 쫓지도자의 관계 .....	54
제 2 절	내적 문제의 인식과 하나님과의 나눔 .....	59
제 3 절	관계 발전과 저항 .....	61
제 4 절	신앙체험을 평가하는 기준: 영분별의 원리 .....	63
제 8 장	지도자와 쫓지도자와의 관계 .....	68
제 1 절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	68
제 2 절	성격의 다양성과 성격 장애 유형의 다양성 .....	71
제 3 절	대화하기 .....	74
제 4 절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장애요인 .....	79
제 9 장	영적 지도의 훈련과정 .....	83
제 1 절	삼두체제 .....	84
제 2 절	영적일지 .....	86
제 3 절	대화록 .....	88
제 3 부	영적 지도를 교회에 적용하는 방안들 .....	90
제 10 장	영적 지도를 통하여 새 가족 운영 방안 .....	91
제 1 절	불신자 친구들을 향한 참된 영적 안내자 .....	91
제 2 절	새 가족과 함께 영적 순례를 하는 영적 친구 .....	94
제 3 절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눔의 현장 .....	95
제 11 장	영적 지도를 통한 목사와 성도의 영성 회복의 길(심방과 상담 측면) .....	97
제 1 절	심방의 대안으로서의 영적 지도 .....	97

제 2 절 심방의 대안으로서의 영적 지도의 한 예 .....	99
제 3 절 영적 지도관계로서 목사와 성도 .....	101
제 4 절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 .....	104
제 5 절 영적 지도의 실제 진행단계 .....	105
제 12 장 영적 지도를 통한 속회, 가정교회, 구역 등 소그룹 운영 .....	107
제 1 절 소그룹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목표설정 .....	107
1. 관계 중심의 모임 .....	107
2. 예수님 중심의 모임 .....	108
제 2 절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그룹 지도자 .....	108
제 3 절 소그룹의 나눔의 시간에 스토리텔링과 영적 지도를 접목하기 .....	109
1. 현 교회의 문제점 .....	109
2. 가정 교회 모임의 핵심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	110
제 4 절 회원들의 자기 역할의 분명한 인식 .....	112
제 13 장 영적 지도로서의 예배, 교육, 위원회 및 제직회 .....	113
제 1 절 영적 지도로서의 예배 .....	113
제 2 절 영적 지도로서 교육 .....	118
제 3 절 영적 지도로서의 위원회 및 제직회 운영 .....	121
제 14 장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 .....	126
제 1 절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적 지도 .....	126
제 2 절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손길을 통한 교회의 영적 지도 .....	128
제 3 절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 .....	129
제 15 장 요약과 결론 .....	132
제 1 절 요약 .....	132
제 2 절 결론 .....	137

부록 .....	139
참고문헌 .....	144
Vita .....	148

## 제 1 장 서 론

오늘의 시대는 영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반 서점이나 기독교 서점이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영성에 관한 책들이다.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개인의 인격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인간상호간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깊은 내면세계 속에서 자기들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영성의 싸움장이 되고 있다. 교회는 참된 영성을 찾아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바르게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안일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 개인의 마음 깊이 도사리고 있는 내면의 영적인 문제들 더욱 연구하면서 현 시대 속에 복음을 바르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1 절 연구의 동기

영성이란 단어는 종교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지들 더욱 분명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회자되고 있는 영성이 모두가 적합하고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혀 절대자가 없는 영성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영성도 존재한다.

더구나 이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듯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삶의 현장은 처참하기까지 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은 자신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결과가 가져오기도 한다. 그들의 영혼은 내면 깊은 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한 사람

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할수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제공되어 온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기독교의 진리를 보급하는 측면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진정 그것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회의들을 낳았다. 이것은 곧 인간의 이성적 면을 뛰어넘는 더 깊은 영적인 면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각 개인의 영혼은 우주와 같이 넓다. 즉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영혼이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소우주들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각각의 영혼을 향하여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한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러 면을 다루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써 성도들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찾고 있던 중에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sup>1)</sup>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영적 지도가 교회 안에 적용되어질 때 단순히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일 중심의 목회, 업적 중심의 목회를 넘어선, 상처받은 영혼, 고난 속에 있는 영혼, 억압받은 영혼, 가난한 영혼을 향한 사랑 안에서의 관계 중심의 목회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표

예수님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들 거쳐 중세 교회까지 행해졌던 영적 지도의 교회 전통을 회복하여 이 시대 교회의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영적 순례의 동행자로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룸으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이 연구의 목표가 있다.

1) 영적지도란 피지도자의 영적 성숙을 위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이다. 상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14-16페이지를 참조.

###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3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영적 지도의 정의와 필요성, 성경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 기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시대에 따라 목회의 중심이 변화하면서 목회전략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감추어졌던 교회의 보화인 영적 지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회의 다변화 속에 상실되어 가는 각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목회 사역으로써의 영적 지도의 절실한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영적 지도자, 영혼의 관리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지도자, 피지도자의 관계들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님과 피지도자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지도의 목표이다. 피지도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에서는 지도에서의 중요한 듣기와 공감하기 그리고 피지도자의 성격장애 등을 다루려고 한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피지도자의 저항을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영적 지도가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새 가족을 영접하고 양육하는 면에서 영적 안내와 친구로서의 영적 지도를 생각해 보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적 지도를 이루어나가며, 예배와 각종 모임에서, 또한 순 모임이나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 어떻게 단체적 영적 지도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이로써 진정한 사랑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관계 중심의 교회들 세워가고자 한다.

## 제 1 부

### 영적 지도의 필요성과 정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기초

영적 지도는 현 시대의 필요에 의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안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져 온 것이며 교회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영적 지도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서서히 감추어졌다가 현대에 이르러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영적 지도가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영적 지도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영적 지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지도가 어떠한 신학적 기초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장

### 영적 지도의 필요성

오늘 교회는 영성에 있어서 다시 깊은 눈을 떠야 한다. 인간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릴수록 근본 된 자기 모습을 찾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화 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피상적인 대화 한 마디에 의해 고쳐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문제에 눈을 더 크게 떠야하고 심지어 목회의 방향까지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목회의 중심이 시대들 따라 변천함

오늘날처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혼란스러운 때에 목회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목사가 이해하고 있는 목회와 교회가 목사에게 기대하는 목회 사이에 견해차이가 존재한다면, 교인들은 목사의 목회 사역을 공감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싸움과 갈등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만 목회의 본질도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교회사들 통해 보면 목회의 중심은 여러 가지로 변천하였다.<sup>2)</sup>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교가 목회의 주축을 이루었기에 목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중세초기까지는 성례전적 은혜의 중재자로서의 목회가 중심이었고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은 목회 중심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 즉 설교자로 바꾸었다. 근대와 현대에 오면서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설교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2)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 최대형 역 (서울: 은성, 2003), 25.



지면서 새로운 목회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 교육 전문가로서, 전임 목회 상담자로서, 또는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민권 운동가로서 더 나아가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문 경영자로서 변신하기도 하였다. 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목회의 중심이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뀌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변화는 현 시대 목회의 몰파구가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목회의 중심이 근본적인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의 근본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완성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목회 중심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이다.

## 제 2 절 영성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

오늘날 영성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에 대해 갈급해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영성이란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스토아 영성, 불교 영성, 도교 영성, 실존주의 영성, 해방신학 영성, 심지어 노동자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 1. “영성”이란 단어의 유래

영성이란 단어는 에드윈 호스킨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사용된 용어이다.<sup>3)</sup> 15, 16세기에는 사회의 독특한 계층인 성직자들을 상징했으며 때로는 교회의 재산이나 수입을 나타내기도 했다. 후일에 이 용어는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사용되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경멸을 담은 의미로, 지나치게 순화되고 정화되고 지상 생활과 그다지 연결되지 않았기에 정죄되었던 신비주의를 의미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영성”은 보다 고등한 차원과 신비적인 요소들을 암시하는 기도와 훈련 생활을 정의하는데 흠잡을 데 없는 용어가 되었다.

3) Gordon S. Wakefield, “영성,” *기독교영성사전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2), 402.

## 2. 현대인이 “영성”을 목마르게 찾는 이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영성이란 단어에 주목하고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 새롭게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우클 다우니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을 들고 있다.<sup>4)</sup> 첫째는 유대인 대학살과 대량 핵 파괴의 첫 번째 사례인 히로시마 원폭투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다. 이 일들은 종교와 신성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엄청난 살상과 파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었다. 또한 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 위와 같이 행해진 악은 바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오만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악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과 무능력으로 일관하였다고 본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는 외부의 어떠한 권위도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느낌만을 헌신, 도덕적 책임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최종적 권위가 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의 로널드 클라이저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큰 힘은 자기도취, 실용주의, 끝없는 불안감이며<sup>5)</sup>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맞추어졌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결정을 개인발달의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런 이해는 곧 자기 몰두와 자기 집중, 그리고 자기 집착으로 이어져갔다. 즉 현대 문화는 개인주의를 만들어 내고 자기도취를 고착화시킨다. 실용주의는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간주하므로 사람들의 평가도 그 사람의 일의 성취도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 이것은 영적인 삶의 잣대는 될 수 없는데 이는 영적인 삶의 목표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우리를 경험에 굶주리게 한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쫓아다닌다. 이로써 현대 세상은 더 많은 불협

4) Michael Downey,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안성근 역 (서울: 은성, 2001), 32.

5) Ibid., 35.

화음과 혼잡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자기도취, 실용주의와 끊임 없는 불안감의 현대 문화의 특징들은 결국 분열과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경험하고 난 뒤에야 현대인들은 현대 문화의 특징들이 결국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았을 뿐, 따라야 할 참된 길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이해와 존재방식이 요구되었고 현대인들은 내면에 있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폴 존스는 영성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현대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닫는 소비주의의 공허함, 정치권력의 폭력성,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불의, 핵 확산의 불안정, 생태파괴 등과 같은 외적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오로지 소비적 상품을 권장하는 “가치체계”를 탈피하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내면의 추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영성이 강조되고 영적 지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다.<sup>6)</sup>

### 3.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

그러면 현대인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영성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다우니는 영성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속에서 자기 초월적인 지식과 자유와 사랑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sup>7)</sup> 영성에 대한 그의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요소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여러 차원-영적인 차원을 포함해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며 두 번째 요소는 분열과 비인간화의 힘 앞에 맞서는 개인의 온전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라는 부분이다.

기독교 영성 사전에서는 영성을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부여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초감각적인 실체들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태도, 신앙, 관습들”이라고 정의하였다.<sup>8)</sup>

오성춘 교수에 따르면 영성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sup>9)</sup> 이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이 최고의 정신이며 이를 본받고자하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스토아 영성은 소크라테스

6)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배정웅 역 (서울: 은성, 2005), 52.

7) Michael Downey,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32.

8) Gordon S. Wakefield, “영성,” 402.

9)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40.

의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영성훈련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그런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런 정신을 자기 삶에 구체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새로운 정신과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옛 정신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영성을 이해한다면 영성이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계시로 파생되어지고 감화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영성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영적인 존재, 신들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은 분명히 악한 것이었다.<sup>10)</sup>

#### 4. 기독교적 의미의 “영성”

영성이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면서 그 의미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졌기에 기독교 내에서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도 곧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영성이 소리 없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교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영성이란 단어 대신에 “기독교적 삶”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기독교 영성이 단지 신비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거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기독교 영적 전통의 근원과 토대는 소란한 흥분 상태나 비정상적인 현상, 또는 특별한 계시들의 아니라 “영적 절제”였다. 기독교 영성은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바울이 말한바 새 생명은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변용된 삶”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11)</sup>

10) Gordon S. Wakefield, “영성,” 403.

11) Ibid., 403.

### 가. 일반적인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비교<sup>12)</sup>

대체로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격의 정신과 사상과 삶을 본받으려는 인본적인 영성인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적인 요소와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들 추구하는 수직적이고도 하나님 중심적인 영성이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나. 학자들의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노만 사우츱(Norman Schawchuck)은 기독교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에 강조점을 두면서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sup>13)</sup>라고 정의한다. 존 메쿼리(John Macquarrie)는 인간을 하나님께 영을 분배받은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자기초월의 성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sup>14)</sup>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창조의 영역을 성령의 영역으로 보고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삶의 회복뿐 아니라 피조된 전 우주의 회복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아이리스 칼리(Iris V. Cully)는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들 기초로 하여 어떻게 인간의 삶을 정의, 사랑, 평화의 관계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또한 영성은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나 인간의 응답을 개발하는 교육과 육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성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였다.<sup>15)</sup>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의 영성의 중심은 관상기도다. 관상기도를 통하여

12) 오성춘, *영성과 묵회*, 48-49.

13) Ibid., 50.

14) John Macquarrie, *영성예의 길 (Paths in Spirituality)*, 장기천 역 (서울: 전망사, 1994), 62.

15) 오성춘, *영성과 묵회*, 66.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함께 보며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행동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sup>16)</sup> 관상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합일이 곧 하나님의 구원과 사회개혁의 사명과 행동에 동참하게 하는 원동이 됨을 강조했다.

오성춘 교수는 기독교 영성을 초월자와의 인격적인 관계-변화의 체험-의 역사현장에의 참여라 정의하였다.<sup>17)</sup>

위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기독교 영성이란 인격적인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들 기초로 하며, 우리 영의 성령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갈망을 통해 영적 체험과 동시에 새로운 의식의 확장과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체적인 역사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영성을 위해 목마른 우리 삶에 영혼의 동반자 혹은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제 3 절 내면의 자아와 영분별에 대한 무지함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맹점으로 가려져 있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 면이 자기 기만이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힘이 자신을 총동원하여 자기도 모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고 몰이킬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신앙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겸손히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을 영혼의 친구 또는 영적 지도자라 불러왔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내면을 ‘그림자’로 설명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조차 낯선 내적 힘이 주장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절망과 증오와 시샘으로 오염되며 교만과 야망으로 유혹받으며 권력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역사는 사람의 그림자의 확장이라고 에디슨은 말하였다.

16) 오성춘, *영성과 묵회*, 69.

17) Ibid., 71.

영적 지도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지하실을 없애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속에 있는 싸워야 할 적과 대면하도록 요청받은 전쟁터가 있다”<sup>18)</sup>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그 어두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적 지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영분별과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도 영적 지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정신적 병적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마귀만을 쫓아냄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축귀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여 치유함이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서 오는 신비적인 체험이 과연 하나님으로 온 것인가 자신의 심리에서 나온 것인가 악령에 의한 것인가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것은 더욱 위험한 길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여 신비한 체험을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적 친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자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우리의 길을 찾기가 힘들고 현재 당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sup>19)</sup>

#### 제 4 절 목회중심으로서 영적 지도

우리 사회는 영적 체험에 굶주려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회가 아닌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 영혼을 양육하는 장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장소가 되어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원한다면 목회 사역의 중심을 영적 지도에 두어야 한다.

유진 피터슨 교수는 오늘날 교회 목회철학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말로는 거룩한 소명을 행하지만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이나 출세들 더 간

18)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57-58.

19) Kathleen Fisher, *Woman at the Well* (New York: Paulist Press, 1988), 125.

절히 추구한다. 목회자들의 실제 사역이 신학의 진리나 영성의 지혜가 아닌 시장 원리와 시장의 압력에 밀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 경건에 못지 않게 목회적 거룩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up>20)</sup> 그래서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고 창조와 언약에 뿌리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을 가진 목회 철학 곧 한 영혼을 위해 이름 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영혼을 깊이 돌보는 영적 지도의 목회 철학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그는 목회 사역의 모양을 결정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3가지 행동을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라 하였다.<sup>21)</sup>

---

20) Eugene H. Peterson, *성공주의 목회신화를 포기하라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19.

21) Eugene H. Peterson, *균형, 그 조용한 목회혁명 (Working the angels)*,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11.



## 제 3 장 영적 지도의 특성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 요즘 괴물이 나타나는 꿈을 자주 꾸었다. 갑자기 방언이 터졌고 이상한 힘이 솟아난다. 안수들 받고 쓰러진 후에 사후의 세계를 보았다. 이런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불건전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외로움,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등에 마음을 사로잡히기도 하고, 암을 선고받거나 친구가 동성애자였음을 알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종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무의식이나 심지어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욱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들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켈트 격언 중에 “영혼의 지도자가 없는 사람은 목이 없는 몸체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에게나 건전한 영혼의 삶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지도해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 준다.

### 제 1 절 영적 지도의 정의

영적 지도란 낯선 용어는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보물이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적 지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심리치료나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이 방법들이 지닌 한계들 인식하게 되었고 외부의 방식이 아닌 교회 안의 본연의 자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영적 지도가 이 시대 전인적인 치유의 새로운 도구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영적 지도에 관한 용어들 사용함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영적 친구, 영혼의 동반자, 영적 동반자, 영혼의 목자, 영혼의 의사, 영적 인도, 멘토, 막역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 영적 산파 등이다. 이들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다. 전체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영적 지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피지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들 더욱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로 자라게 한다. 둘째, 성령의 내적 역사, 신적 체험을 발견토록 돕는다. 신앙 체험과 영적 지도의 관계는 음식 재료와 요리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영적 지도는 개념이 아니라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피지도자와 지도자가 함께 피지도자의 삶에 끼친 하나님의 영향력을 분별한다. 넷째, 영적 친구로서 피지도자의 상처가 씻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자기 인식을 촉진한다. 여섯 번째, 영혼의 친구로서의 신뢰와 동기를 일으킨다. 일곱 번째, 지도자는 피지도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덟 번째, 참된 지도자는 성령임을 인정한다.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적 지도란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의사 전달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의사 전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친교를 깊게 하고, 그 관계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다.<sup>22)</sup>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적 지도를 정의할 수 있다. 영적 지도란 자신의 영적 삶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하는 한 사람(피지도자)이 하나님의 임

22)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김창재, 김선숙 역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2003), 20.

재하심에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집중하여 영적 분별력을 키움으로써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지도자)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지속적인 관계이다. 여기에 영적 지도 과정의 주된 초점은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어떠하며 그 관계들 통해 반영되고 도전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있다.

이러한 영적 지도란 용어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첫째, 인간이 어떻게 영성을 지도할 수 있는가? 이는 Spiritual Direction이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지도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하는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도하는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지도에서의 지도는 영적 지도자가 피지도자들 직접 지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동반자로서 피지도자가 성령의 역사들 바르게 분별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피지도자에게 자신의 사상이나 경험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성령 다음의 제 2인자이다. 둘째, 영적 지도는 카톨릭 적이 아닌가? 이는 단지 카톨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어온 전통이며 성경적인 것이다. 셋째, 목회 상담과 같은 것이 아닌가? 목회 상담은 심리학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된다. 영적 지도는 상담 기법은 공유하지만 내용과 방향,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들 지닌다. 영적 지도는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영적 지도는 은사인가 교육인가? 영적 지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은사들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공부하고 활용해 보아야 한다. 주신 은사들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 제 2 절 영적 지도의 목적

영적 지도의 목적은 각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들 분별하고<sup>23)</sup> 더 나아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일치들 이루어나가는데 있다.<sup>24)</sup>

23)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81.

24)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20.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깊은 모든 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에 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다. 만일 다른 이의 영적 지도의 도움이 없다면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한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영적 순례의 길을 포기해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영적 경험의 자기 해석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따라서 피지도자의 영적 체험의 분별은 영적 지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 체험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들 분별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체험을 분별하는 학습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는지 보여주는 교사이기도 하다. 분별은 자신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분별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분별의 목표이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가 영적 지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기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며 정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피지도자와 나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피지도자의 삶에서 위험한 부분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에 존경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준다.

이렇게 영적 체험을 분별함으로써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 지도의 목표로 한다. 피지도자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영적 지도는 피지도자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도록 도움으로써 이루어진다.<sup>25)</sup>

25) Jeannette A. Bakke, *Holy Invitation* (Dartmouth: Baker Books, 2000), 91.

### 제 3 절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sup>26)</sup>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상담에서 얻은 대화술은 영적 지도에서도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상담에서의 목회의 한계점이 영적 지도들 통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즉 영적 지도는 영적인 문제들 다룰 수 없는 상담의 영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들 다룬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 1.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유사점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듯이 지도자와 쫓지도자가 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들 유지한다. 또한 상담에서 사용되는 대화의 방법은 영적 지도 시에도 그대로 사용된다.

##### 가. 인격적인 상호관계에서 유사점

두 가지 모두 쌍방에 대하여 약속과 기대가 요구되어진다. 상호 도움의 관계들 가지게 된다. 신뢰가 바탕을 이룬다. 내담자나 쫓지도자는 서로에게 내면의 가장 깊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이 신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잘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진행과 기법에 있어서 유사점

두 가지 모두 도움을 청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문제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 “내가 이 문제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진다. 영적 지도자나 목회 상담자는 찾아온 사람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영적 지도 혹은 목회 상담을 진행한다. 영적 지도자나 목회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찾아온 자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신뢰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 특히 이들

26) 영적 지도와 크리스천 코칭에 있어서도 경청과 대화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으나 영적 지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을 돕는 과정이나 코칭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들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들 성장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다.

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영적 지도나 목회 상담 모두 내담자나 쫓지도자에게 변화들 강요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과 적절한 성장을 촉구할 뿐이다. 영적 지도에 있어서 독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라서도 안 된다.<sup>27)</sup>

또한 영적 지도나 목회 상담 모두 한계들 가지고 있다. 영적 지도자나 목회 상담자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 곧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의료적인 치료나 정신과적인 치료들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면 반드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영적 지도의 진행이나 상담의 진행에 있어서 대화의 기법은 동일하다. 이는 상담의 대화술을 영적 지도에 적용한 것이다.

## 2.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의 차이점

영적 지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 목회 상담은 문제 중심이고 영적 지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중심이다.

목회 상담은 보통 개인적인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그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들과의 갈등문제 혹은 질병과 실직, 죽음으로 인한 이별 등 개인의 고통과 좌절을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상담에는 이 문제들 풀어가기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관계는 끝난다. 그러나 영적 지도는 다른 동기로 인해 시작된다. 쫓지도자는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들 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는 쫓지도자의 현재의 상황을 다루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아픈 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영적 지도이다.<sup>28)</sup> 영적 지도자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쫓지도자의 관계들 깊게 하는데 있다. 어떤 문제가 신앙에 방해가 되는지 신앙을 깊게 하는 지에 대한 원인에 민감하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질문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27) N. W. Goodcare, "영적지도," *기독교 영성사전*, 418.

28) Kenneth Leech, *Soul Friend: An Invitation to Spiritual Dire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96.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자아 발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원인들을 찾는 데 있다. 그러니 영적 지도 과정 속에서 모든 초점은 피지도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나. 목회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영적 지도는 성령님을 제 일 지도자로 모시고 진행된다

목회 상담이 전적으로 성령님을 배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심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있다. 그리고 상담의 내용도 내담자의 특정된 문제에 한정된다. 그러나 영적 지도는 영적 지도자나 피지도자 모두 함께 피지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지도하시는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체험은 그것을 통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피지도자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에 주의 기울이고 피지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들 인식하게 된다. 이는 성령님의 지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 제 4 절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

목회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목사의 정체성은 달라진다. 교육이 목회 중심이 될 때는 교사로서의 목사가 될 것이고 사회 정의 실현이 목회 중심이 될 때 인권운동가로서의 목사가 될 것이며 경영 관리가 목회 중심이 될 때는 경영자로서의 목사가 될 것이다. 진정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목사상은 어떤 것인가?

##### 1. 목사의 정체성 전환이 필요하다

한 동안 교회는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리하기에 바빴다. 따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한 자질에는 행사 조직 능력,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능력, 리더쉽을 행사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믿음보다 현실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므로 비전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지상 교회들 앞세우는 개교회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결국 이러한 목회 사역은 참된 목사로서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목사는 공장에서 제조한 것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다. 목사는 전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로 비유해 본다면 그 순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목사는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을 획일적인 틀 안에 밀어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현실의 사람들, 즉 특별한 자기 인생 이야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이들이 이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했는가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경영 관리자로서의 목사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 성공을 목표로 삼기가 쉽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성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살아남아 더 큰 교회들 이루기 위해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깨뜨어진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지상의 교회, 곧 내 교회, 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로 바라보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확장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유진 피터슨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프로그램 담당자로서의 목회자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로의 변화였다”라고 고백하였다.<sup>29)</sup>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한 목회사역으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 중심의 목회 사역으로 바뀌어야 하고 목사는 영적 지도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교회 역사 속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3.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이다.

영적 지도자는 주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한

29) Eugene H. Peterson, *성공주의 목회신화를 포기하라*, 224.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은 곧 자기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섬김을 통한 영혼의 치유와 양육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영적 지도자는 이들 위하여 부름 받은 존재다.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근원을 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었고 죽기까지 낮추시었다. 예수님을 본받아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돌보는 것이 곧 목사의 소명이다.

## 제 4 장

### 영적 지도의 성경적 배경

영적 지도는 먼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다. 또한 구약 시대엔 선지자와 서기관을, 신약 시대엔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도들 특히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적 지도가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영적 지도의 거울을 삼을 수 있다.

#### 제 1 절 구약-유대교에서의 영적 지도의 예들

하나님은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영적 지도를 하셨으며 타락 이후에는 인간 개인이나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영적 지도를 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지도를 감당한 사람들로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혹은 랍비, 지혜자와 부모들 등이 있다. 선지자들은 왕들을 지도하기도 하였고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 1.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영적 지도에 관한 것이다.<sup>30)</sup>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에게 영적 지도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30)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45.

(창2:16,17) 창세기 1장 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피조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이것은 인간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들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지도해 준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규율이 필요했다. 이는 인간의 존재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의 교제들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 곧 지, 정, 의로 구성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럴 때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각 영혼에 대한 영적 지도의 목표도 여기에 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였을 것이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창3:8) 늘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이들이 특별한 그 날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음을 아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므로 에덴 동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될 수 없었던. 쫓겨난 그들은 죄책감, 불안,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자식을 낳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들 저버려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향한 자신의 역할을 떠나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 하나님은 죄 범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

아오셨고 대화하셨고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지도를 하여 주신 것이다.

## 2. 선지자

선지자는 한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무엘 시대엔 선견자로 불리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기도 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의뢰하러 간 것이었다. 하나님은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다.

다윗 왕도 충성스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히 죽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가 자기들 찾아온 나그네들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이웃이 딸같이 키우고 있는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다윗은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하였다. 그 때 나단은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자임을 깨우쳐 주었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영적 지도를 행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 다윗이 몰이킴으로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렘2:1-2) 하셨다. 또한 어느 특정한 사람 즉 왕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영적 지도를 감당하였다.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고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다. 하나님은 스킨바벨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학개와 스가랴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셨다.

## 3. 서기관 또는 랍비

서기관의 대필자로서의 기능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렘36:4,18,32) 종교적 기능으로 전환된 것은 포로 기간 중이나 그 이후의 일이었다.<sup>31)</sup>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31) Bruce M. Metzger, *신약성서개설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포토로 잡혀있을 때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 율법의 전문가요 안내자들이 배출되었다. 초기 서기관들 중 가장 유명한자는 제사장 에스라였다(느8:9). 이들은 율법교사 또는 교사라 불렸지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위대한 분”이란 의미의 랍비라는 호칭도 사용되었다.<sup>32)</sup> 이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면서 율법을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를 연구하였고 또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율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일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기관들이 율법의 도구들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삶 한가운데 만날 수 있는 보다 친근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힐렐, 가말리엘과 같은 자들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제사들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서기관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 흩어진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들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4. 지혜자

구약의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또는 시편의 일부이다. 지혜자의 교훈으로 기록되어진 지혜서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들 말해 준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잠2:6)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미련하게 될 뿐임을 강조한다. 월터 카이저는 지혜서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한다.

삶이란 생명과 죽음, 기쁨과 고통, 가난과 부와 같은 대조적인 것으로 스케치되어 있으므로 여호와에 대한 완전한 헌신(“경외”)의 관계들 떠나서는 아무 것도 의미가 없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sup>33)</sup>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과 진리들 일치시키고 완성해 나갈 수 있음을

content),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45.

32) Bruce M. Metzger, *신약성서개설*, 45.

33) Walter C. Kaiser, *구약성경신학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37.

설파하였다. 속과 성, 모든 진리의 통일성을 여호와 경외에서 찾았다. 우주의 창조주 안에서 신앙과 지식, 교훈과 믿음, 신앙과 문화 사이에 어떠한 괴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혜자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안내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적인 영적 지도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당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들 자세히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 5.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의 본을 볼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영적 안내자 역할을 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신6:6-8)는 철저한 말씀 교육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이심을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교육받았다.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잠6:1)고 하면서 자신도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잠6:3-4)

## 제 2 절 신약에서의 영적 지도의 예들

영적 지도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적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에 이어 영적 지도를 실천한 이가 바울이다.

## 1. 예수 그리스도

### 가. 각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의 사역은 서기관들의 전통을 계승하기도 했지만 단절된 것도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할 가르침 주시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서기관들을 호칭하던 대로 랍비라 불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다른 사람의 권위와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쳤으며 이로써 듣는 무리들로 하여금 랍비들에게서 보지 못한 권세와 권위를 느끼도록 했다(마7:29). 예수님은 사역의 초반기에는 대중 사역에 힘을 쏟으셨지만 후반기엔 대중사역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교육하셨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하셨지만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이해 주셨다. 한 영혼을 깊이 관제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 나. 영혼을 돌보시는 분

예수님은 당시에 만연되었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면서 참된 율법 준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임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인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인 부모 공경을 어기고 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셨다. 자식들에게 나이 많아 연약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했던 것이다.

안식일의 병자 치유는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 문제였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정신이 이웃 사랑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다.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 율법준수에 매여 백성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 안식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진정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주님은 참된 안식을 가져오기 위해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지막엔 십

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홀리심을 통해 죄로 인해 영혼의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참된 안식을 가져올 수 있게 하셨다. 치유는 육체와 영혼에 깊이 병든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sup>34)</sup>

#### 다. 개인의 영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영적 욕구들 아셨고 그들 만나 주셨고 그와 교제하여 주셨다. 이로써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셨고 그들 영혼의 깊은 욕구들 보셨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 라. 각 사람의 영적 재능을 신속히 알고 격려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며 격려해 주셨다.(마15:21)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 이들 통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십사 청한 후 구태여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병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고, 말씀하시므로 그대로 하인이 나왔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서 그들 적절하게 격려해 주셨다.

#### 마. 육체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와 관련이 있었다.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9:2)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최악된 심령을 먼저 고치시고 후에 몸도 고치셨다. 열두 해를 혈투증으로 고생하

34)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51.



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고 만졌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마9:22)고 하셨다. 혈루증을 고치심과 함께 여인의 영혼까지 고치셨다.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하였을 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고 하였다. 육신의 눈을 고치신 주님은 그 영혼의 눈도 열리게 하셨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관련이 있다. 정신이나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육체가 병이 든다. 몸이 아픔으로 정신이나 영혼의 잘못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육체의 병만을 고친다면 오히려 육체에 더 큰 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의 치유이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들 회복케 하는 구원적 의미의 치유이다.<sup>35)</sup> 영적 지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전인 치유다. 우리의 질병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오는 영혼의 병을 다루지 않고 육체의 병만을 다룬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 바. 영적 갱신과 변화들 촉구하신 분

예수님은 각 영혼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랍비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으며 다섯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녀의 영적 공허들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한 인간을 개인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영적 갱신과 변화들 촉구하셨다. 각 자의 영혼의 상태는 다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게 나타난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대면해 주셨다. 피지도자의 영혼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지들 파악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영적 지도의 목적이다.

## 2. 바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도들의 훈련이

35) 오성춘, “신유의 은사와 영적 치유의 연관성,” *목회와 신학*, 1993년 12월호, 460.

절실히 필요하다. 범죄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마18:15-17). 영적 지도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바울은 영혼의 치유자, 혹은 영혼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온 여러 가지 핍박으로 고통 받았지만 그보다 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실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바울도 연약하여졌고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였다(고후11:28-29).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였다(갈6:1).

바울은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영혼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혼인(고전7:1), 성도 간의 소송(고전6:1-8), 음행(고전6:12-20) 등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는지들 가르쳤다.

그 외에도 바울은 개인적인 지도를 잊지 않았고(롬16:3,5,6), 각 양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행동하였고(고전9:22),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하였다(행20:19). 바울은 특히 성도들 사이에 꾀차 서로 격려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롬14:19, 살전5:11,14. 골3:16).

## 제 5 장

### 교회사 속에서의 영적 지도

개혁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 온 것은 말씀과 성령이시었다. 이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옳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체험을 살피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경험의 주체자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식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과 안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 교회의 역사 전통 속에서도 영적 지도는 계속 행해져 왔다. 영적 지도는 단순히 교회에서 임명된 자들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회의 직책과도 구별되었다. 오히려 영적 지도는 내적인 권위 즉 성령에 의한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를 임명받은 전문 사역자도 있었지만 수도자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평신도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교회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 지도의 전통을 살펴보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영적 지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영적 지도의 역사적 의미

영적 지도에 대한 개념은 교부 시대와 중세 초기의 수도원 전통 특히 동방정교회의 수도원적 경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사막교부들이 제자들을 영적 지도하면서 남겨놓은 핵심적인 메시지들 모은 “교부들의 금언”(Apophthegmata Patrum)이나 4C에 존 카시안이 경험한 사막 교부들의 영적 지도의 실제를 적어 놓은 “담화집”(Conferences) 등에서 영적 지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런 개인 수련 차원의 영

적 지도의 전통은 점차적으로 제도화되어 켈지도자들 위한 영적 지도로서의 공동체와 개인생활을 위한 특별한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 나온 것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이다. 12C에 와서 줄곧 폐쇄적으로 여겨졌던 수도원으로부터 비교적 개방적이며 대중적인 영성운동인 탁발 수도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성도들을 위한 영적 지도에 큰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 1. 교부 시대와 동방 교회의 전통

초기 서방교회에서의 영적 지도는 동방교회에 비하여 간접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경건생활을 위한 독신그룹들(the holy virgins)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의 형태로 감독들에 의해 행해졌었다. 터둘리안이나 키프리안에 의해 쓰인 글에는 독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에 관한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편지 형태나 수도원들을 위한 규칙서의 형태로써 개인이나 공동체 영적 지도로 활용되었다.<sup>36)</sup> 제롬(340-420)도 베들레헴에 수도원을 세우고 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활발한 서신 왕래를 통해 이탈리아와 고을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덕적인 권고들 하였다. 거기에는 의복, 은둔, 독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이 실려 있고, 수덕 생활에 관한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문장과 세속성에 대한 독설이 포함되어 있다.<sup>37)</sup> 암브로시우스도 특정한 영혼들이 영적인 완덕에 이르도록 영적 지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영성생활의 초기 단계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히 독신자의 영성생활의 상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덕들을 실천하도록 영적 지도를 해 주었다.<sup>38)</sup> 어거스틴(354-430)에게서도 중요한 영적 지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많은 정신적인 갈등 속에서 회심을 하였기에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나 과학과 종교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없이는 아무도 행할 수 없다”<sup>39)</sup>고 했을 만큼 영적 지도에 관심을 쏟았다.

동방교회의 영적 지도는 이미 4-5세기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비롯된다. 사막에서

36)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152.

37) C.E. Stancliff, “제롬,” *기독교영성사전*, 522-523.

38)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53.

39) Kenneth Leech, *Soul Friend*, 41.

완덕을 추구하며 독거하면서 지내던 이들에게 많은 이들이 몰려 왔고 자연스럽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마음의 청결과 기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충고와 안내를 원하였다. 이로써 자연적 영적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영적 지도 없이 영적 순례를 하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였다. 사막의 영성을 대변해 주는 동방의 두 교부는 이바그리우스 폰티쿠스(Evagrius Ponticus)와 존 카시안이다. 사막의 전통에서 침묵과 고독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sup>40)</sup>

5-6세기 때 동방교부들의 영적 지도의 전통을 서방에 소개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존 카시안(345-499)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의 제자였으며 수도원의 생활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가서 이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이집트 사막의 곳곳에 다니면서 만난 은둔자와 나눈 영적 담화의 경험을 “담화집”이란 책으로 내었고 실지로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에 있는 수도원에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지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카시안은 내적 여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수도 생활의 이론적 측면을 제시했다. 내적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책을 통과하고 자기 부인에 이르며 사막으로의 도피로 이어진다. 그 곳에서 수도사들은 내면에 그리스도의 삶을 확립함으로써 사랑의 완전함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sup>41)</sup> 카시안의 수도원 운동에 대한 노력은 6세기의 “베네딕터 규율”(the rule of Benedict)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베네딕트(480-547)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창시자로서 “오라 에트 라보라(ora et labora)”, 즉 기도와 육체노동의 조합을 제시하는 규정을 통해 수도원 통치 체계를 발전시켰다.<sup>42)</sup>

5-8세기 동방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기도방법인 “예수의 기도”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였다. 예수기도는 호흡기도라고도 알려졌는데 이는 이 기도가 숨 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생각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는 ‘헤수키아(hesuchia)’, 즉 고요함에 이

40)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54.

41)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6), 545.

42) Benedicta Ward, “카시안 존,” *기독교 영성사전*, 581.

르게 하기 때문이다.<sup>43)</sup> 이런 기도 방법은 시나이의 세 수도사들 곧 존 클리마쿠스(St. John Climacus), 그의 추종자 헤지키우스(St. Hesychius)와 필로테우스(St. Philotheus)로 인해 크게 발전되었다. 필로테우스는 반복된 예수의 기도들 통해서 흠어진 자아들 모으고 마음의 등불로 인도되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 빛으로 가슴을 채운다고 믿었다. 이들은 예수의 기도들 호흡과 관련시켰다. 클리마쿠스는 “예수의 기역을 당신의 호흡과 연합시켜라” 헤지키우스는 “예수의 기도들 당신의 호흡에 달라붙게 하라” 필로테우스는 “예수의 기도들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숨 쉬라”고 했다.<sup>44)</sup> 그러나 이런 기도 속에 세밀한 영적 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내적인 혼란한 감정을 통하여서도 속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교회에는 스타레츠라고 불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초기 수도원주의 전통과 동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스타레츠는 서품을 받은 성직자가 아니어도 성령의 인도 하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평신도 수도사나 수녀일 수도 있다. 러시아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스타레츠 중의 한 사람이 세라핌(St. Seraphim of Sarov, 1759-1833)이다. 사막의 안토니와 같이 세라핌이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한 일은 오직 고독한 삶 속에서의 기도였다. 고독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이로써 세상 사람들과 단순히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었다. 영적 지도자로서 스타레츠의 특별한 은사는 먼저 통찰력과 식별력이다. 통찰력은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하여 다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속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 은사는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스타레츠는 피조물 속에서 창조자의 보편적인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sup>45)</sup>

43)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텝트럼*, 547.

44) 유해룡, *하나님의 체험과 영성수련*, 157.

45) Ibid., 160-162.

## 2. 중세 탁발 수도회의 전통

이제까지의 영적 지도는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수도자들의 영성을 형성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었다. 13세기에 수도원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수도회는 사회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영적 지도의 대상도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공동체가 프란시스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이다. 내면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도 중요시하였다.

### 가. 프란시스 수도회

프란시스는 권위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순종을 강조하였다. 지도자와 수련자 사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영적인 아버지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프란시스는 그의 제자들의 영적 지도를 위해 ‘1221년의 규범’과 1223년의 규범’을 남겨 주었다.<sup>46)</sup> 프란시스회의 수도 규율에 따른 영적 지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47)</sup> 성경에 대한 명상적 반추를 한다. 2)복음서가 직면한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제시함으로 도전을 받도록 한다. 3)각 수도자들이 진정한 은혜의 역사를 식별하기 위해서 경험들을 나눈다. 4)공적으로 사적으로 자문과 기도들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 이것은 프란시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나. 도미니코 수도회

이 수도회의 영성 지도의 예는 시에나 카더린(St.Catherine of Siena)의 저서 “대화집”(dialogue)88-109에서 볼 수 있다.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리들을 듣고자 열망하고, 진리들 향하여 자기 자신을 개방한 사람이며, 오직 주님이 그들을 지도하신다. 그 진리는 인간의 지성의 눈에 비치는 빛 그 자체라고 하면서 이성의 식별을 중요시하였다. 이 지성의 눈은 믿음에 의해서 세 단계로 열려진다. 첫 단계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 여행을 시작한다. 이 빛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보게 되며 인간의 헛된 야망, 깊은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육성과 영성

46) 유해룡, *하나님의 체험과 영성수련*, 163.

47) Ibid., 165.

의 투쟁 등을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의 빛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빛이다. 여기에는 금욕수련을 통하여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에 자아를 열어놓는 훈련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삶에 주어진 시련을 겸손과 인내와 끈기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있다.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빛은 감사와 찬양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비치는 빛이다. 모든 이기심을 이 빛으로 불태우고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로 나아간다. 카더린의 영적 지도의 원칙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해 영적 지도자는 수련자가 믿음의 중심인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또는 수련자의 영적 생활이 자아의 인식에서 이웃에게로 진보하고 상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카더린은 이런 원칙 하에서 영적 지도자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수련자들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야 한다. 수련자의 마음의 상태와 느낌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각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sup>48)</sup>

### 3. 근대 영적 지도의 전통

근대 영적 지도의 전통은 첫째 깔멜 수도회의 전통을 지닌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1515-1562)나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 1542-1591)에게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영신수련”(The Spiritual Exercises)이라는 영성수련 안내서를 펼쳐냄으로서 영적 지도의 틀을 마련해 준 로욜라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 1495-1556)에게서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개혁자 중 존 칼빈으로부터 볼 수 있다.

#### 가. 깔멜 수도회

깔멜 수도회는 관상수도회이기에 영적 지도가 그 중심이었다. 관상적인 경험은

48) Catherine of Siena,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The Dialogue* (NY: Paulist Press, 1980), 184-197. 유해룡, 하나님의 체험과 영성수련, 166-167에서 재인용.



내면적인 것이기에 깊은 성찰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영적 지도자의 안내가 필요하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그 자신의 영적 경험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영적 지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많은 오해들 받아 고초를 치르기도 하고 영적 생활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탁발수도회에 속한 베드로(Peter of Alcantara) 수사들 영적 지도자로 맞이함으로써 의혹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 지도가 초심자이든 높은 관상에 이른 사람이든 모두에게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이들의 영적 지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자아에 대한 인식’(self-knowledge)에 있었다. 자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기도생활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짐을 강조하였다. 테레사가 쓴 “영혼의 성”(The Interior Castle)에서 나오는 일곱 개의 저작은 자기인식, 초연함, 겸손과 건조함, 감정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작, 신비적인 경험과 조용한 기도,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연합을 가리킨다.<sup>49)</sup>

십자가의 요한은 아빌라의 테레사의 수도원 개혁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다가 톨레토에 있는 갈멜수도원 독방에 감금당하였다. 여기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이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영적 성장의 신비들 체험하게 되었다. “갈멜산 등정(The Ascent of Mount Camel)”과 “영혼의 어두운 밤(The Dark Night of the Soul)”에서 그는 ‘자각의 밤’에 의한 영혼의 정화들 묘사하였고,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The Living Flame of Love)”에서 ‘영의 밤’을 묘사하였다. 이렇게 그의 영적 체험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가 ‘깜깜한 밤’이었다. 밤은 영성 생활의 정화의 과정이요 하나님과 일치들 향한 영혼의 길이다. 이렇게 그의 저서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표현한 것이지만 또한 피지도자들 위한 영적 지도의 해설서이기도 하였다.<sup>50)</sup>

#### 나. 예수회 전통의 영적 지도

예수회의 창설자 로욤라의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 1491-1556)가 쓴 영신수련은 영성 훈련 과정 실습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지침서이다. 대략 30일의 훈련 과정에서 실제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것이다. 즉 수련자가 이 책의 안내를 따라서 영성수련을 하는 동안 영적 지도자는 수

49)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555.

50)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84.

련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켜보고 수련자들 격려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영적 지도를 “침묵의 환경에서 말씀과 특별한 자료들 통하여 성령 안에서 수련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에 적응시키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돕는 작업”<sup>51)</sup>으로 보았다.

#### 다. 개혁주의 안에서 영적 지도

종교개혁 이래로 영적 지도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영적 지도가 권위적인 사제주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인적인 영적 지도의 전통은 이어졌다. 특히 개혁자들은 편지로 영적 지도를 주고받았는데 칼빈이 페라라 부인과 카니 부인에게 행한 영적 지도 또한 편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칼빈 역시 윌리엄 파렐(William Farel)이나 마틴 부처(Martin Bucer)와의 편지들 통해 자신의 슬픔과 문제들 털어놓으면서 위로와 인도를 구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여 서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상호관계적인 영적 지도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섬머셋 공작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주재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양심의 유일한 법칙과 영적 지도서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sup>52)</sup>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영적 지도보다는 오히려 ‘영적 친구’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것이다.<sup>53)</sup>

마틴 루터는 수도원적 영적 지도의 한 열매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거스틴 봉쇄수도원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은 영적 지도에 있어 중요한 의미들 가진다. 첫째는 만인 제사장설이다. 사제직의 타락에 대한 반발로 그는 교해성사(영적 지도)가 반드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는 루터의 결혼결정이었다. 이는 기독교 가정을 통해 영적 지도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개혁판 수도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요한 웨슬리의 집도 영적 지도의 장소였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가족 중 자녀들에게 매주 일대일 영적 지도를 행할 만큼 잘 알려진 영적 지도자였다. 요한 웨

51)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98.

52) Kenneth Leech, *Soul Friend*, 81.

53)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201.

슬리가 국교들 개혁하는 수단으로써 단체적 영적 지도를 조직 원칙으로 고수하였다. 웨슬리 운동의 속회 모임과 성경 연구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영성적으로 지도하고 훈련하는 장을 제공했으며<sup>54)</sup> 웨슬리는 이들 위한 규칙을 세워 훈련의 법이라고 불리는 감리교 법을 정하였다.<sup>55)</sup>

## 제 2 절 영적 지도의 현대적 의미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 풍부한 영적 지도의 전통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가족 기도, 매일 성경 읽기나 취침 전 기도 등은 현대에 와서 거의 사라졌다. 가정의 위기들 곧 영적 지도의 위기로 보는 이들까지 있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던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일대일 만남의 과정을 위기관리 상담으로 제한시켜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인간화되어져 가는 사회에 대한 충격으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영성에의 추구이다. 유일신보다 범신론적이며 내면의 신 곧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지켜나가기 힘들다. 경험적 신앙의 위험 때문에 교리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체험적이며 역동적인 기독교를 생명력이 없는 사변적인 기독교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적인 차원을 잃지 않으면서 독특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모색 중의 하나가 풍부한 영성적인 경험과 전통적인 지혜들 이어받아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갖춘 영적 지도의 체계를 교회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발달은 영적 지도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날 인간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로 보아 마귀 사냥으로 몰아붙였지만, 이제 심리학의 발달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 구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서로 영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영적 친구인 의

54)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183.

55)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129.

미의 상호적인 영적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적인 규범 안에서 일생을 통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한 영적 지도에 책임감 또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정당화시켜주거나, 비위를 맞추어 주거나, 비기독교적인 삶의 대처방식을 제공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 제 6 장

### 영적 지도의 신학적 기초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초월적 하나님과 내재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지도는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에 영적 지도가 이루어질 때 피지도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분께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지도의 주된 관심이다. 이 때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얼마나 깊은 관계들 가지고 있는가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영적 지도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은 피지도자의 기도생활과 일상적인 체험, 꿈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등이다. 이것들은 결국 피지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에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입장에서 피지도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을 관상적 태도로 들으며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영적 지도 과정 속에 영적 지도자나 피지도자는 일차 지도자이신 성령님의 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 제 1 절 체험

영적 지도의 일차적 관심은 피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실제 체험에 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의 근본적인 문제들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의 모양새들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신앙체험과 영적 지도와의 관계는 음식 재료와 요리의 관계와 같다.<sup>56)</sup> 음식 재료가 없으면 요리할 수 없듯이 신앙 체험이 없이는 영적 지도가 있을 수 없고, 피지도자가 생생한 체험을 가질수록 영

56)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20.

적 지도가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 1. 체험의 중요성

삶이 체험이다. 매일 쓰는 일기는 그 날에 있었던 체험의 기록이다.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의 신앙 체험의 기록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체험 중 으뜸은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 행사를 통해 이 체험을 자자손손 들려주고 있다. 신약에서 최대의 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다. 잊을 수 없는 이 체험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신구약의 말씀은 신앙공동체의 체험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메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한 사람의 신앙도 체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떤 교파나 교리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전날의 목사님의 경건한 모습이나 교인들의 환한 표정을 본 인상적인 체험이 끈이 되어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체험이 있었기에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었고 결국 삶에 영향을 주어 더 큰 변화들 가져오게 한다.

#### 가. 체험의 의미

그러면 체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체험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길가다 우연히 친구들 만나 안부들 주고받았는데도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백지상태로 즉 과거 체험의 구조 없이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없다.<sup>57)</sup> 체험이란 다분히 한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체험은 주관적이다. 사전 이해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과거에 쌓여온 경험에 따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자기 체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미래의 생활양식을 그 체험에 따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체험 자체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57)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103.

만약 그 체험 자체를 틀렸다고 하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 나. 체험의 통로

이 체험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통로는 다양하다. 먼저 체험은 오감을 통해 만나고 이해하게 되지만 인간의 감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체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지식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체험이다. 그런가 하면 감각적이고 지적인 체험을 뛰어넘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초월적인 체험이 있다. 이를 신비적 체험이라 부른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에 무아지경에 이르도록 도취될 수 있고 이성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감각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야만 인식되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의 영역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체험이 가능하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 2. 신앙체험의 형태

의식세계의 나들 에고(ego)라 하고 무의식 세계의 나들 자아(self)라 하면 에고와 자아를 합친 것이 전체로서의 나이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 세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된다. 의식 세계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무의식 세계, 즉 비물질 세계에서 체험하는 신비체험의 영역이 크기 때문이다. 신앙의 체험은 바로 이 신비체험의 영역이다.

#### 가. 의식(consciousness)과 인식(awareness)

의식의 세계는 접근 가능한 세계이다. 어제 일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같이 우리 스스로 불러 낼 수 있는 것을 의식이라 한다. 인식은 지금 현재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중심부분을 의미한다. 즉 사람과 꽃이 있는 사진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의식이라 한다면 사람이든지 꽃이든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을 인식이라 한다. 그래서 의식 가운데 체험이 일어나는 영역이 인식이다.

#### 나. 합일의 체험

신앙체험은 기도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있다. 무당의 체험은 자기의 인식이 없고 자기들 잃어버리고 다른 인격이 자기들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몰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식이 개방되어지고 더욱 활기를 얻게 되고 더욱 또렷해진다. 감각도 생생하여 세상이 분명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탈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속에 합일이 된다. 사고가 활발히 일어나고 세상과 나의 분리된 의식이 사라진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할 틈도 없어진다. 바울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은 곧 그와 하나의 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전6:12). 서로간의 의지와 사랑의 일치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의 일치들 경험하게 된다.<sup>58)</sup> 이 합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개방, 하나님과의 일치,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감지하게 된다.

#### 다. 자기 이미지의 체험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인위적인 가짜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이미지들 만들어 낸 자기 체험이다. 이런 체험은 심리적 정신적 착각에서 비롯된 체험이다. 상상입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가짜 체험을 많이 한다. 영적 경험도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를 쓰고 체험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이미지 체험을 하게 된다. 자아가 병들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집착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흥보다가 님게 되고 미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는 대상과 님게 된다.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사로잡힘을 당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귀신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귀신을 더욱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요 체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체험의 특징은 선이나 사랑, 믿음이 결핍되어 있으며 체험 후 오히려 타인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심이 생긴다. 그러므로 체험이 어디서 온 것인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자기 이미지에서 온 것인가, 사탄에게서 온 것

58)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215.



인자들 분별해야 한다. 자아가 건강하고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체험의 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촉진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는 진짜 체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험은 우리 전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진다.

## 제 2 절 은혜

은혜는 영분별의 기준이 된다. 현재 내가 맛보고 있는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으면 진짜 체험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짜 체험이 된다. 진정한 신적 체험은 은혜에 달려 있다.

### 1. 은혜의 정의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들 품기도 하지만 대체로 다음의 의미들 가지고 있다.

#### 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죄된 사람들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이 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롬4:4) 그래서 은혜는 획득되어지는 것 즉 공로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sup>59)</sup>

#### 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의사소통의 수단

은혜는 인간이 초월적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원수이며 불경건한 자들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59) John Murray, *조직신학1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19.

게 가르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 다. 위에서 주신 초월적 특성

은혜의 주권성은 은혜의 본질에 함축되어 있다. 은혜가 인간의 공로의 강제를 배제하여 은혜의 모든 강제와 설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에 기인해야 한다.<sup>60)</sup>

### 2. 영적 지도와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영적 지도의 원자료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과 자기제시의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경험과 내적 조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 영적 지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성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향하는 존재로 가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롬 8:17,18).

### 3. 은혜의 효과

#### 가. 죄로부터 자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롬8:2)

#### 나.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

60) John Murray, *조직신학*, 124.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격에서 벗어나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초월, 자기 중심성의 탈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로써 자기 한계성, 자기 제한성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내 식구,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포용하게 된다.

#### 다. 교회와의 협력

참된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 공동체 연합을 추구하게 된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협력하기를 추구하는가는 영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라. 하나님과 일치

은혜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 이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힘,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이고 영적인 연합으로 정의된다.<sup>61)</sup> 그리스도와 일치됨 이룰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 4. 은혜에 대한 응답

영성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가에 나타나게 된다. 참된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촉진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촉진되고 믿음으로 행하려 하는 실천의지가 강화된다. 이것은 또한 받은 은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5. 은혜의 통로

범선은 바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공들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 바람을 잘 받도록 돛을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61)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경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696.

수 있도록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영적 훈련이다. 농부 자신의 힘으로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없다. 농부는 단지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일 즉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땅에서는 자연의 힘이 씨를 맡아서 곡식으로 자라게 한다. 영적 훈련도 이와 같다. 즉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들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우리들 심는 것이다.<sup>62)</sup> 즉 우리 몸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몸을 영적 생활의 신뢰할 만한 동반자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sup>63)</sup>

제네스 보아(Jenneth D. Boa)는 영적 훈련에 대하여 두 가지 절제훈련으로 홀로 있음과 침묵 훈련을, 그리고 세 가지 참여훈련으로 학습, 묵상, 기도훈련을 제시하고 있다.<sup>64)</sup>

### 제 3 절 관상기도 및 관상적 태도

자기 몰두가 오로지 자신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관상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보다 다른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될 때 일어난다. 즉 책에 심취되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누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을 느끼지 못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온전히 몰입되어,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신 신비한 체험을 관상기도라 한다.

#### 1. 관상기도의 의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관상기도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현존과 성령의 뜻과 그리스도의 의지에 완전히 의탁하며 그분의 뜻과 일치하려는 기다림의 기도라고 정의하였다.<sup>65)</sup>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안과 안식을

62) Richard J.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4.

63)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468.

64)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94-105.

65) 오성춘, *영성과 묵회*, 68.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재적이지만 초월적인 체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들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였다. 밤은 우리의 감각이 잠든 상태들 의미한다.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최상으로 그려도 참 하나님을 그릴 수 없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사랑의 사귄에 이르려면 감각의 세계는 닫혀져야 한다. 감각의 세계가 닫혀진 세계가 곧 어두운 밤이다.<sup>66)</sup>

## 2. 묵상과 관상의 차이

묵상기도는 인간의 이성, 사고, 이미지, 욕망, 감정을 사용하여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 즉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드리는 기도라 한다면, 관상기도는 비움이란 부정의 방법을 통해 모든 마음의 이미지와 사고와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을 인식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 자신을 교묘한 가운데 개방하는 것이다.

## 3. 관상과 영적 지도와 관계

영적 지도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는 관상적 태도를 가지고 피지도자를 대하여야 한다. 즉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자기 원칙, 자기 신앙을 피지도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피지도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상의 태도에서 영적 지도에 임하여야 하며, 피지도자로 하여금 자기들 초월하여 바라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 4. 관상과 행동

영적으로 관상하는 삶과 행동하는 삶의 양극단은 오랫동안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토마스 머튼의 관상기도의 삶을 통하여 관상과 행동의 관계를 보여준다. 머튼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행동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즉 머튼은 하나님께 더

66)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08.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보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으며 그 분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행동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성 베네딕트는 안식과 활동, 내적인 열성과 외적인 순종, 경건과 훈련, 기도와 노동,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이웃을 섬김, 생명수의 근원과 거기서 흐르는 물길들의 리듬이 융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7)</sup>

#### 제 4 절 공감

영적 지도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게 된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통로이다. 그런가 하면 영적 지도에 있어서 피지도자와 함께 영적 여행을 하는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체험에 따른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공감적 반응을 할 수 있다.

##### 1. 공감의 의미

공감은 상대방을 깊이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Rogers는 기본적인 공감적 듣기들이와 같이 정의하였다.

내담자의 개인적인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평안히 있는 것이다. 순간 순간 그가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분노나 부드러움이나 혼란을 느끼는 등 변화되는 감정의 흐름의 의미를 민감하게 느낀다. 이는 곧 내담자의 삶 안에 잠시 사는 것이며, 판단 없이 그의 삶 안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8)</sup>

공감적 듣기가 이루어질 때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고 이로써 공감적 반응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초공감이란 영적 지도자가 듣고, 피지도자의 체험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관심이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바르게 전달하며, 피지도자가 보다 온전한 이해에 기초하여 행동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영적 지도자가 피지도자의

67)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209.

68) Gerald Egan, *The Skilled Helper* (Pacific Grove: Brooks/Cole, 2002), 49.

감정에 서 있게 될 때 공감(共感)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곧 찢히도자의 신발을 신고 나란히 걸어가 주는 것과 같은 것이며, 찢히도자가 가진 어떤 감정이라도 판단하여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다루어 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으로 인해 영적 지도자와 찢히도자 간에 신뢰감이 강화된다. 예수님은 무리들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함께 나누셨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의 깊은 감정을 함께 나누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깊은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우셨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면에는 공훈(Compassion)이 있었다. 상대방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 2. 겸손 공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누군가에게 진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 인격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입고 심지어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sup>69)</sup> 사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없애 주셨다. 진정한 영적 지도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진정한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해 지는데 이런 신앙적 자세는 참된 겸손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겸손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세이며 인간이 가진 제한성을 인식하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sup>70)</sup>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들에 대하여 더 큰 사랑으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돌보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여기에 그룹으로 영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69) Henri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100.

70) Anselm Grün, *아래로부터 영성 (Spiritualität von unten)*, 전현호 역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1999), 43.

## 제 2 부

###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

영적 지도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더욱 성숙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에서는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가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쫓지도자의 관계가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 쫓지도자의 관계들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관계들 더욱 온전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그분의 성품을 다 헤아려 깨달을 수 없고 그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창조하신 인간과 관계들 맺으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들 가지시면서 그 인간의 역사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고 그와 관계들 발전시키는 길을 알지 못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쫓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고, 쫓지도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오는 내적인 깨달음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오는 관계 발전과 저항을 다루려고 한다. 무엇보다 신앙의 여러 가지 체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런 목표들 이루기 위해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와의 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생각해 보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며 다양한 쫓지도자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 7 장

### 하나님과 피지도자의 관계

영성은 곧 관계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셨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곧 관계 회복이 영성의 중심이다.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의 목표이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피지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영적 지도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인식되어질 때 오는 관계 발전과 저항이 어떤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 제 1 절 하나님과 피지도자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 여부는 나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라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여기에 외로움과 상실감과 무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구심, 혼란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모든 뿌리이신 하나님을 상실한데서 온 것이다.

### 1. 신적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신을 표현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기독교 영성사들 보면 세 가지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중세의 성 프란시스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무엇보다 '자연'에 두었다. 두 번째는 칼빈이나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만남의 장소를 '성경'에 두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요한 등 영성가들이며 이들은 그 만남의 장소를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들꽃의 작은 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이루어진 것이다. 성 프란시스에게 자연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자연도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흔적 또는 하나님의 발자취는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프란시스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품 곧,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순종과 찬양을 배웠다. 그가 철저한 가난을 주장한 것도 자신을 철저히 비울 때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게 됨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물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을 믿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들 구실로 삼을 수 없다"<sup>71)</sup>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자연을 통한 지식은 인간의 부패한 지성으로 인해 인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며,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장소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는 사랑과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다. 부드러움과

7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52.

강함, 분노와 실망과 염려 등이 깔려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노와 슬픔과 끈기와 연민과 사랑으로 인생들을 대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십자가의 성 요한(John of the Cross, 1542-1592)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 또는 사랑의 사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 삶의 목표였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이 잠자는 상태에만 가능하다. 인간의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최상일지라도 하나님 자신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과 사귄에 이르려면 감각이 닫혀야 한다. 이 닫혀진 영혼의 세계가 곧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sup>72)</sup>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과 심령이 정화되어 있다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두운 영혼 깊은 곳 곧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 2. 기도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기도의 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며 이는 영적 지도의 귀중한 재료가 된다.

전에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내부에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을 실패하였다. 그런 후에 기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이 기도들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내부에 깔려 있지만 진정 그것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기도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들 이미 하나님께 쏟아놓았지만 계속 되풀이해야 할 경우가 있다. 분노는 일시로 없어지지 않는다. 용서들 해도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다. 그러니 기도 속에 자신의 분노의 마음을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하나

72)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184.

님 앞에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받아 주실 분이시다. 따라서 기도할 때 더욱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더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므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관심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자는 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연민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주님이 가지신 공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의 삶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심한 학대를 받았던 딸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의 이미지들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궤지도자의 배경, 환경을 알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왜 궤지도자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는지, 혹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3. 꿈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는 신구약에 흔하게 나온다.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통로의 하나가 꿈이며, 이로써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존 A. 샌포드는 꿈을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꿈을 연구하여 책을 썼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여 장래의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음을 말하였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은 곧 그들의 장래를 결정지어 주는 계시적 꿈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위험이 다가옴을 알고 애굽으로 궤하였다. 바울도 아시아로 선교하려 할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 “와서 우리들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선교지의 방향을 돌려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꾸는 꿈을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두었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꿈에 의해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꿈은 해석되어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해석되지 않은 꿈은 마치 뜯어보지 않은 편지와 같다고 했다. 요셉도 다니엘도 꿈을 해몽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였다.

꿈은 일상적인 언어들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꿈에서 나오는 상징적 언어들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들 이해하기 위해 꿈일지들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쓸모없는 꿈은 없으며 단지 해석되지 않아서 지나칠 뿐인 것이다. 모든 꿈은 가치가 있고 특히 심리적 가치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꾀지도자의 꿈을 잘 살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과 성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sup>73)</sup>

샌포드는 꿈은 전인적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자신의 그림자와 의식의 자아가 온전한 합일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한다. 꿈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꾸게 된다. 그 무의식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전인적 인간의 상,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을 지니고 있다.<sup>74)</sup> 이것은 마치 상수리나무의 알이 장래의 나무의 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자라서 상수리나무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은 알 속에 숨겨진 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심겨진 상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무의식 속에 있는 상은 곧 꿈을 통하여 의식의 세계에 표현되어진다. 무의식 속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이 꿈을 통하여 의식 속의 자아와 화합을 이루어 하나의 원을 만들어 갈 때 전인적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sup>75)</sup>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sup>76)</sup> 꿈을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 속의 자아들 깊이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들 가지게 된다.

73) Louis M. Savary, Patricia H. Berne, and Strepnon Kaplan Williams, *꿈과 영적인 성장 (Dreams and Spiritual Growth)*, 정태기 역 (서울: 예솔, 1993), 311.

74) John A. Sanford,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Dreams: god's Forgotten Language)*, 정태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78.

75) Ibid., 187.

7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35.

## 제 2 절 내적 문제의 인식과 하나님과의 나눔

피지도자의 신적 체험이나 기도 생활이나 꿈 등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그것에 대하여 피지도자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영적 지도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피지도자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의 과정은 피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피지도자의 삶에 관여해 왔으며, 피지도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영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결단에 의해 시작된다.

첫 번 만남은 피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여 오셨는지를 말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피지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여 왔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나 일을 염려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동기로 영적 지도자들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피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를 주게 되고,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체험을 이해함으로써 영적 지도가 이루어질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피지도자와 같은 보조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깨달음과 공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피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간에 진지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피지도자는 자신의 체험과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삶의 체험을 말하거나 영적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혹은 최근의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이럴 때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경험이나 기도의 상태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도울 수 있다. “기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당신이 받은 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피지도자는 자신의 체험이 이야기할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자신의 체험을 망설이지 않고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꿈에 대한 것은 흔히 개꿈이라 하여 주의들 기울이지 않지만 영적 지도자가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면서 더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들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계기들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피지도자의 체험 사실에 대한 정보들 캐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지도자가 스스로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보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로 질문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피지도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절망적이었습니다”이란 말에 “정말 당신은 앞에 캄캄하였겠군요”로 말해 주고 “하루 종일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우울하셨군요”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피지도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줌으로써, 피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삶에 대해 피지도자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들 가져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싫증을 내며 우울해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은연중에 기도들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삶에 대한 이런 부정적 반응들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는 자신도 모르게 건조해진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피지도자의 감정들을 지적해줌으로써 피지도자가 문제들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이것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 중에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제안한다.

영적 지도자는 종종 피지도자가 기도 중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된다. 피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좋은 감정들만 표현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은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태도들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 자신 속에 혼동과 좌절 이면에는 피지도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가치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그의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다.<sup>77)</sup> 피지도자가 이러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영적

77)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88.

지도자는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말하는데 당신은 진정 어떻게 느끼니까?”라고 질문함으로써 피지도자들 도울 수 있다. 피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받아주시도록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은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들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제 3 절 관계 발전과 저항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신적 체험이나 기도 생활, 꿈 등을 통하여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들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피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의 변화들 일으킬 만큼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답보상태에 있게 될 때 저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다. 영적 지도의 목적을 피지도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성장으로 볼 때, 피지도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들 맺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지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오늘의 아내와 남편, 친구가 내일도 동일한 모습이기들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는 변화들 원한다. 이 두 바람이 상반되면서 갈등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항은 오히려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충격적인 상처로 인해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로, 거짓된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무의식적인 보상행위로, 자신의 완벽주의들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저항은 우리 실제의 내면을 깊게 보게 하고 변화들 위해 은혜의 힘이 절실함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개선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항이 일어나는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잘못된 옛 행동을 중단하지만 심리적으로 욕구충족을 하지 못해 반발이 일어날 때 등이다.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적 경험 자체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에 대해



여 또는 영적 지도 자체에 대하여 저항하기도 한다.<sup>78)</sup> 한 때 기도에 열심이었던 이의 기도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피지도자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쁨이었지만, 이렇게 하다간 자기 식구와 세상 생활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 가져올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정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 줄어들어 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 더 깊은 관계들 갖는 것을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 영적 지도자는 기도 생활의 형편을 물어보면서 피지도자가 기도 생활과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들 바로 이해하도록 도울 때, 피지도자는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도하게 되고 기도생활에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저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 자신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눅18:34).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도 중에 잠을 자거나 기도들 피하는 것, 기도자체나 하나님의 체험을 의심하는 것도 저항의 경우일 수 있다. 지도자와의 면담을 피하거나 영적 체험에 대해 토론하지 않으려 하고, 영적 지도들 받기를 포기하려는 것 등도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sup>79)</sup>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체험의 구조들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때, 그 체험을 설명할 수 없기에 불안하게 되고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가 아닌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그런 체험에 저항하기도 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신뢰관계들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체험, 이로 인한 변화의 과정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자아상과 다른 자아상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 지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들 맺는다는 것은 늘 새로움과 계속되는 변화들 의미한다. 하나님은 신비이시다. 몰라서 신비라기보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시기에

78) Jenet K. Ruffing, *Spiritual Direction* (NY: Paulist Press, 2000), 36.

79)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102.

신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아도 다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저항을 극복하면서 늘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 지도자가 인식하였을 때,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저항을 취조하듯 다루지 말아야 한다. 저항은 오히려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이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가 스스로 자신 내면의 저항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이다. 피지도자 스스로 저항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영적 지도자는 오히려 저항이 더 깊어지도록 허용한 후 그 유형을 잘 지적해 주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다. 때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해져 영적 지도자와 적대적인 관계들 형성시킬 수도 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영적 지도 관계들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신뢰의 힘이다.

#### 제 4 절 신앙 체험을 평가하는 기준: 영분별의 원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과연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도록 하였고(신18:21-22), 신약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4:1)고 하였다. 신앙체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유혹의 말인지, 내 속의 내면의 말인지들 분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들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요 미래는 오늘의 선택의 결과다. 선택은 곧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일상생활 안에서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 결혼의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때로는 교회들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이후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조급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먼저 성령의 역사들 분별해야 한다. 이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악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기도와 말씀묵상은 가장 효과적인 분별의 도구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신다. 셋째, 계시의 통로인 인격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인격을 통하여 온다. 먼저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성을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의 재정상황이나 사업목적,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직장의 분위기 등 장단점을 잘 살펴보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처음 제안이 오는 직장이 하나님의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엔 각 선택의 경우를 놓고 떠오르는 감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성을 통해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를 주시해 보아야 한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결정 후에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도 중에 문제들 다시 하나님 앞에 두고서 그 결정에 마음에 평화가 계속되는지 또는 성령에 마음을 열고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80)</sup>

## 2. 체험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심리적인 현상인가를 분별해야 함

### 가. 요일4:1은 영 분별의 신중성을 가르침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에 ‘시험하라’는 단어는 ‘나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영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에드워드 오코너(Edward O'Conner)는 영분별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감들이나 충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혹은 사단으로부터인가 혹은 우리 자신으로부터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sup>81)</sup>

성경이 제시하는 분별의 분명한 대 원칙의 하나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근본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마7:15-20)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이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갈

80) Dennis Edwards, *Human Experience of God* (NY: Paulist Press, 1983), 117.

81)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221.

5:16-17). 또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적대관계이므로 어떤 하나를 식별하게 될 때 다른 하나는 저절로 식별이 가능해진다. 즉 영에 의한 내적인 움직임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에 의한 움직임은 곧 사랑이요 악령에 의한 책동은 이기주의와 증오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목표들 향하여 가도록 우리들 인도하지만 악한 영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 우리들 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한다.

이런 객관적인 분별의 원칙이 있지만 실제 신앙체험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이기에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대한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행동에 대한 인간의 감성이 어떠한가에 따른 분별방법이다. 물론 분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에 충분히 헌신된 영혼의 상태와 자신의 의지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하는 순수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백지 상태에서 오직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면서 우리의 감성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감성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해 지지만, 그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은 피지도자로 하여금 영의 움직임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확신을 개발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다른 세력들이나 영들이 움직여 나아가는 방향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 나. 로욜라의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의 영성 식별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그의 책 영신수련에서 영성 식별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선택의 세 시기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일 적절한 선택의 시기는 그 영혼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sup>82)</sup> 둘째, 영혼 안에서 영성적 위안이나 영성적 고독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영들의 움직임

82) Ignatius of Loyola, *영신수련 (The Spiritual Exercises)*, 윤양석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313항.

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sup>83)</sup> 셋째, 심리적으로 평온함을 느낄 때이다.<sup>84)</sup> 첫째 경우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기에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이성이나 상상력을 사용한다. 선택할 경우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장단점을 철저히 점검해 봄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기도의 영 안에서, 무엇이 보다 온전한 선을 이룰 것인지를 심사숙고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이 확고해지는 이성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이 죽는 순간이나 심판 날에 자신이 처할 상태를 상상해 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추구함으로써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분별하기에 가장 힘든 것이 두 번째 시기이다. 영신수련의 중심된 연구는 이 시기이다. 영성적 위안인지 영성적 낙심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이나시오식 영성 분별의 핵심이다.

#### 다. 영성적 위안과 영성적 낙심 때에 나타나는 감정의 양상

영성적 위안의 시기 때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만한 은혜로 어려움도 인내하며,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 이런 영적 위안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영적 낙심의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위안은 자신이 만들어 낼 수 없고 더불어 자신은 이런 상태들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감사들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영성적 낙심의 시기에는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며, 절망, 암울함, 불신 등 우울증과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 결과 기도생활과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심한 메마름과 삭막, 무의미와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들게 된다. 이런 낙심의 시기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는 하나님의 부재들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85)</sup> 오히려 기도, 묵상, 성찰과 회개들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나시오는 “대항하여 행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이 낙심의 상황에 저항해야 한다고 설파한다.<sup>86)</sup> 더 나아가 낙심의 때

83) Ignatius of Loyola, 영신수련, 170항.

84) Ibid., 175항.

85) Ibid., 318항.

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낙심의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감정상 그렇게 느낀 따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나시오는 이러한 낙심이 오는 이유들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sup>86)</sup>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게으르고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는 다시 은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정화작업으로 오는 경우인데 우리의 거짓된 원칙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낙심이 온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조건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경우이다. 즉 자신은 결코 위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위안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허락한 낙심이다. 이런 경우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

86) Ignatius of Loyola, 영신수련, 157항.

87) Ibid., 322항.

## 제 8 장

###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관계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믿음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자이다. 또한 피지도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자이다. 이것은 몇 번의 만남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답을 줌으로 끝이 나는 상담의 역할과는 달리 영혼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가는 영적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 속에 있는 신뢰는 영적 지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가 피지도자의 성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나름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를 계속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에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피지도자들을 잘 듣고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영적 지도의 기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관계들 깊게 하면서 영적 지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봄으로서 영적 지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1 절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일대 일 영적 지도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이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저항과 방해들 만날 수 있다. 미리 지도자가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자신 속에 부족한 면을 보완

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1. 영적 지도자의 자질

영적 지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첫째,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sup>88)</sup>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혼 돌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을 때 피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영적 지도는 무엇보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영성에 대한 지식이나 심리학, 또는 상담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피지도자들 올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 속에 드리워진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피지도자가 먼저 되어보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윌리엄은 다음과 같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으나 비교적 성숙해 있으며, 사람들과 함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준다. 그들은 낙관적이나 천진난만하지 않고, 유머러스하나 황대는 아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으나 고통에 짓눌리지 않았고,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며,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든 것임을 알고, 절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패와 죄 많음을 체험했으나 구원된 체험을 나타내며 스스로 편안해한다. 그들은 빛과 어둠과 신비들 가진 삶을 비교적 두려워하지 않는다.<sup>89)</sup>

또한 지도자가 신실할 때, 예들 들어 자기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피지도자는 지도자들 신뢰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개방적 관계들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게 된다. 종합하면 영적 지도자는 자기 영적 성숙을 위해 주의들 기울어야 하며 믿음을 깊이 하도록 기도생활과 정기적인 수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sup>90)</sup>

88) Kenneth Leech, *Soul Friend*, 85.

89)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147.

90) Thomas Keating, *Intimacy with God* (NY: Crossroad Publishing, 1996), 110.



## 2. 관계 종진을 위한 더 요구되어지는 자질

### 가. 넘치는 따뜻함(Surplus of Warmth)

폐지도자도 단점과 한계들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쳐 있을 수 있고 우울해 하거나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도와주려는 넘치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폐지도자가 하나님과 일치들 이루기까지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으려는 의지가 보일 때, 또한 늘 관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폐지도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체험하는지를 알기 위해 인내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할 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매이지 않으면서 폐지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자유함을 가질 때, 이런 따뜻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 나. 목표들 향한 협력 관계(Working Alliance)

이는 관계들 계속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폐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들 선택하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영적 지도들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런 분명한 목표설정들은 두 사람의 관계들 더 탄탄하게 해 준다. 이런 서로의 동의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없다면 폐지도자나 영적 지도자간에 저항이 일어나며 영적 지도가 유지되기 힘들어진다. 즉 강한 협력관계로 인해 때로 만남 시간에 서로 화난 말을 주고받아도 폐지도자는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와 만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sup>91)</sup>

또한 영적 지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폐지도자의 관계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 지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폐지도자의 바람과 노력의 원천도 성령이심을 인정한다면, 영적 지도자는 이 성령의 힘을 바탕으로 폐지도자 내면의 저항을 인식할 때에도 계속해서 협력관계들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91)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167.

## 제 2 절 성격의 다양성과 성격 장애 유형의 다양성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영적 지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협력관계는 두 사람을 묶어주는 띠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에 의해 그 관계는 더욱 협력적이 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쫓지도자의 성격에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

### 1. 지도자와 쫓지도자 성격의 다양성

사람의 관계들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의 차이들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가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이면 영적 지도 중에 자신이 누구이며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개방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쫓지도자가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런 영적 지도자와의 대화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차이들 인식하고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성격의 어떤 유형인지들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영적 지도를 받을 사람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면서 어떻게 영적 지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들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영성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미개발된 측면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부분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면 즉 고유성과 다양성을 영적 지도자가 잘 수용하면서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불어오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폭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특정한 영적 성향을 쫓지도자에게 은연중에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는 마이어스-브릭스 인성검사 지수나 에네아그램, 12단계 치유과정 등이 있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 쫓지도자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들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도자에게 유의함과 동시에 떠오르는 통찰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발견해 낼 수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 인식

이 부족한 피지도자에게 도움이 된다.

## 2. 피지도자의 성격 장애의 여러 유형

누구나 원만한 영적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관계에 반복해서 장애를 일으킨다면 관계들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 외형적으로 보기엔 정상적이지만 실제의 진정한 자기 내면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실제 자신과 다른 것이 문제다.<sup>92)</sup> 좋은 면으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착한 선의 빛, 자신을 드러내는 성찰의 빛, 자신의 기만을 들춰내 버리는 진리의 빛을 죽도록 싫어한다.<sup>93)</sup> 이러한 일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신적인 병으로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성격상의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들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모든 문제와 불편을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게 된다. 비난이 심한 사람은 성격 장애가 아닌가 의심할 근거가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정상적, 비사회적, 부적합한 사람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 중에 있으면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에너지는 거의 빼앗겨 버린다. 남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감정적 뱀파이어”(Emotional Vampire)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자들 바로 파악하고 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목회의 모든 에너지들이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

### 가. 강박성 성격장애

작은 일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고 믿지만, 무슨 일에도 자기에게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예들 들어 자녀에게 조그마한 잘못이 보인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설득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소한 일에 불잡혀 전체를 보지 못하며, 감정이나 물질에 대해 인식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sup>94)</sup>

92) Jeannette A. Bakke, *Holy Invitation*, 89.

93) M. Scott Peck,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109.

94) Wayne E. Oates,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와 치유 (Behind the Masks)*, 안효선 역 (서울:

상대방이 자신의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으로 삼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기에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목사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탄이라고 단정한다.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다.

#### 나. 자기 도취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선 전혀 고려가 없다. 이들은 자기 잘 낫는 맛에 산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동정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 지를 알아보려는 능력은 부족하다.<sup>95)</sup> 자기 이야기는 다 들어주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대화의 대부분은 자신의 멋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들어줄 상대가 없으면 우울해지기 쉽다. 상대방은 이들에게 시종이 되든지 적이 되든지 해야 한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만난 후엔 기분이 나쁘다.

#### 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이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이로 인해 결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을 잘못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이 소극적 저항을 보일 때 일을 지연시킨다든지 빈둥거린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보인다든지, 건망증을 보인다.<sup>96)</sup> 이들은 현재의 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려 않고 미래의 어려움이나 기회들 포착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운이 갑자기 닥칠 것을 기대하지만 늘 자기 환경을 탓하며 불만스러움을 토한다. 자신이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말해야 상대방도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라.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들은 자만심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에스라서원, 1996), 116.

95) Wayne E. Oates, 59.

96) Ibid., 101.

무모하며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자기가 설정한 목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도 자신에게는 예외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매우 전투적이며 호전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많고 투쟁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자이다.<sup>97)</sup> 자기 일에 흥미가 중요시되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이들은 좀처럼 걱정하지 않으며 돈을 맡겨 놓으면 마음대로 써 버린다.

#### 마. 편집성 성격장애

이들은 의심이 많고 별것이 아닌 것도 큰 것으로 여기며,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건다. 많은 경우에 선과 악의 투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경향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당한 대우를 결코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단절시킨다. 이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데도 자신은 어떤 일들 가운데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사람이 작은 실수들 즉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였든지 지시들 잊어버린 경우에 자신을 거역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격렬하게 자신의 가족(또는 한두 명의 친구)을 보호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 제 3 절 대화하기

영성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목사와 성도 간에 많은 문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자 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강요당하였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 치유는 대화의 회복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97) Wayne E. Oates, 78.

### 1. 듣는 기술<sup>98)</sup>

피지도자와 좋은 관계들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원리는 피지도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주의들 기울이고 가장 적당한 때에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피지도자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sup>99)</sup> 듣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으로 응어리가 된 것이 무엇인지들 찾아서 응해 주면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느껴진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한 시간을 대화하여도 결국 대화한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유교 사상을 문화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삼았기에 감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가. 감정은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인격을 이루는 지, 정, 의 세 가지가 평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감정을 잘 표현하셨다. 화내셨고 우셨고 욕도 하셨다.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E. Q가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들 잘 유지하게 된다.

나. 감정과 의도들 혼돈하지 말라

감정에는 의도도 방향도 없다. 대화 중에 화가 났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어서 나온 감정일 뿐이다. 그가 전부더 평소 나들 좋지 않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화들 냈다는 판단은 잘못이다. 화들 내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기 방어기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감정에는 어떤 배경도 없다. 단지 무시당하였을 때 느끼는 것이다.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태연하다면 인격자이라기보다 문제자일 수가 있는데, 오로지 자기 목적 성취만을 바라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98) Thomas N. Hart, *The Art of Christian Listening* (NY: Paulist Press, 1980), 108.

99) Janet K. Ruffing, *Spiritual Direction*, 135.

#### 다. 감정은 퓨즈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전기가 과부하 되었을 때, 퓨즈가 끊어져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기쁨, 분노, 수치심, 의심, 감사 등의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퓨즈와 같다. 더우면 땀이 나는 것처럼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참으면서 눌러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게 됨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보약이 되기도 한다.

#### 라. 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감정은 잊게 된다

축구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 때에는 김스한 다리의 가려움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한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감정은 상대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 마. 감정을 우리 관심밖에 남겨두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으로 되면 통제가 가능해진다. 내 감정을 모를 때에는 유령과 같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정체를 의식할 때 그 문제에 대해 투사하는 것이 사라지며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 감정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솔직하고 바른 통제 하에 표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깨어지지만 그것을 주고받을 때 훨씬 가까워진다.

#### 바. 사랑의 감정은 분노, 두려움, 상처와 수치, 불신 등의 감정이 해결되어야 일어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뒤엉켜져 있을 때에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에 불과하다. 그저 느낌만의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될 때야 가능하다. 제자 훈련을 통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같이 보였지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노가 치유되어야 진정한 예배도 가능해진다.

## 2. 상하고 억눌린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 상처와 불신의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

### 가. 주의 깊게 들어라 즉 창조적인 들음이 필요하다

내가 말하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떠나 오로지 피지도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집중한다. 여기에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어야 한다.

### 나.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화 자체를 비난하지 말라. 남의 감정을 비난하는 것은 대화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져도 무한한 적극적인 관심(unlimited positive concern)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 다. 대화 시 사실과 내용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대화의 실패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있다. 내용이 옳으나 그르냐를 찾으려 한다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되어 대화 후에 기분 나쁜 경험이 되며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고받는 대화는 감정에 맞추어 대화할 때 가능해진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관계들 파괴하는 말이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하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들 새롭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되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찾는데 촉각을 총동원해야 한다.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들 모든 촉각을 동원해서 파악하여야 한다. 실제 진정한 신뢰의 관계는 어디 출신인지들 알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말할 때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



다.100)

### 3. 진정한 대화

대화는 공 던지기 놀이와 같다.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던져 주어야 한다. 받을 수 없도록 던진다면, 받을 수 없는 곳에 자꾸 던진다면 상대방은 지쳐 더 이상 공 던지기를 하고자 아니 할 것이다. 또한 대화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고립된 섬과 같고 이는 정신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대화의 목적은 의견이나 생각, 감정을 일치시키는데 있지 않다. 말만 하면 싸워도 대화들 중단하지 않고 대화할 때 에너지가 교류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가. 대화는 강의나 훈계가 아니다

강의나 훈계는 생각이나 정보들 줄 수 있으나 일방적이기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들이 아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고자 할 때 아이와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나. 대화는 선포가 아니다

오로지 자기 말만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다. 대화가 없이 오로지 훈계와 선포하는 식의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감정이나 의견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점점 자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해야 할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이 없게 된다.

#### 다. 대화의 방법

올바른 대화들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잡아서 되던질 수 있도록 말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보다 자기 문제에 대하여 나눔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남의 잘

100) Thomas N. Hart, *The Art of Christian Listening*, 109.

못을 말하기보다 자기감정을 표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무척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을 바로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 제 4 절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장애요인

영적 지도를 통해 피지도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도 더 가까워진다. 더 잘 알게 되고 더 솔직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된다. 지도 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들 하기도 하고, 실수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지만 대화들 통해 오해와 분노들 풀어나가면서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된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 지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 피지도자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가 되며 심하면 영적 지도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려움에는 전이와 역전이, 투사 등이 있다.

##### 1. 전이(transference)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장을 저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영적 지도자들 왜곡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관계들 유지하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 흑독한 주인이나 자상한 어머니나 과거의 특정 인물로서 보게 된다. 이런 것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왜곡을 전이라 부른다. 즉 자신이 유년기에 알고 있던 모습에 영적 지도자들 동화함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이다.<sup>101)</sup> 영적 지도자들 자상한 어머니로 인식하든지, 엄격한 어머니로 인식하면서 때로는 착한 아들로 때로는 나쁜 아들로 반응을 보이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상담과 영적 지도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도 분명하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상담자들 향한 전이가 문제들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엔 전이들 피하지 않는다. 그러

101)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186.

나 전이는 영적 지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피지도자의 관계 중심에 있으며, 피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서 전이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전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게 되면 전이반응은 사라지게 된다.

전이반응은 강력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적 관계에서의 반응과 쉽게 구별될 수 있다. 피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를 향한 열렬한 사랑, 과격한 분노 및 강력한 의존 등을 보일 때는 전이라 볼 수 있다.

전이가 약하게 일어날 때는 주의들 기울이지만 무시해 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 강도가 지나칠 때는 지도자가 과잉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감독을 받아야 한다. 표현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들 즉 적대감, 공격심, 질투심 등이 피지도자에게 있을 때도, 이런 감정을 영적 지도자가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통제들 받지 않도록 감독을 받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피지도자에게 지도자들 향한 부정적 감정이 몇 회기가 지나도 감소되지 않으면 다른 지도자들 추천하는 것이 좋다. 강하고 부정적인 초기 감정은 피지도자가 보다 심층적 치유들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역전이는 피지도자의 행동 혹은 전이에 대한 지도자의 반응이다. 영적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과거의 삶, 유년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지금 현재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쉽게 전이시킬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개성이 시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영적 지도자 자신의 저항에 대한 도구로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sup>102)</sup> 역전이 반응을 인식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 자신에게 고통과 근심을 야기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 깊은 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 활동에서 아무도 역전이 반응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영적 지도자는 효율적인 관리들 받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역전이 반응으로부터 피지도자들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102)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202.

은 각각 면담시간이 끝난 후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해 성찰해 보면서 평범하지 않은 감정적 반응, 특히 강한 분노나 따듯함이나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들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sup>103)</sup>

### 3. 투사

자신의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한 그대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죄양으로 삼고 거칠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투사라 한다.

자신의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자신의 눈에는 우리가 항상 순결하게 보이려는<sup>104)</sup> 이 무의식적인 반응의 결과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남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사람이나 매사에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지도자들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잦을 때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의식 속에 싸여 있다는 증거이다. 이 때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들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지들 깊이 성찰하여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즉 내면의 억눌린 감정들을 자신이 바르고 정당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엄청난 삶의 에너지와 창의력이 화산처럼 분출되는 선한 기회가 가질 수 있다.<sup>105)</sup>

예를 들어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지만 곧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올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어야 자신이 한 자리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투사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다. 자기들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베드로는 이미 사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감정과 표정 속의 투사로 인해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들 기울어야 한다. 피지도자의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103)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204.

104) John A Sanford, *내 안에 있는 천국 (The Kingdom Within: The Inner Meaning of Jesus' Saying)*, 이기승 역 (서울: 두란노, 1999), 122.

105) 배정웅, “무의식과의 대화,” n.p. 2006년 8월 인용. Online: <http://www.agapechc.org/자료실>.

알지 못하거나 방치한다면 이미 악마의 손에 사로잡혀 그들이 제공하는 검은 말을 타고 문제들 향해 무섭게 다른 사람 쪽으로 몰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 더 이상 선에 속해 있지 못하고 악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준 상태에 처해 있다. 영적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영적 맹점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성령의 은혜로 자기 내면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더 솔직히 나아가 치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9 장

### 영적 지도의 훈련과정

영적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영적 지도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즉 성숙한 인간관계들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주위 깊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피지도자들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라면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적 지도는 단지 천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자질들을 가지고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직한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삶의 신비 앞에 깨어지고 상처를 받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 영혼의 어두운 장소 속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 것, 믿음으로 살며 신앙적 체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성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 피지도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것 등은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추가하여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먼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기 성찰의 방법으로 영성 일기에 대해 알아보고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피지도자와 대화할 것인가, 또는 피지도자라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삼두체계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영적 지도 과정이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록을 기록하여 자신의 지도들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들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 제 1 절 삼두체제(Triad)

삼두체제는 영적 지도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 피지도자, 관찰자의 역할을 세 사람이 교대로 체험해 해 봄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기술을 익힐 뿐 아니라 피상담자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를 경험해 보고, 관찰자로서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 시 보여주었던 자세와 언어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1. 영적 지도자

무엇보다 먼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연습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피지도자나 관찰자로부터 자유롭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자신을 개방하는 자세는 어떤 대화 기술보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대화 기술을 적용해 본다. 실제 피지도자가 자신이 누군가와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느끼도록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피지도자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피지도자와 함께 할 것인가의 신체적 자세를 SOLDER skill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sup>106)</sup>

#### 가. 마주보고 앉으라(Square off)

상대방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앉아라. 옆으로 앉지 말고 피지도자 사이에 책상이나 테이블 같은 장애물을 없애라. 이런 자세는 피지도자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 나. 개방적 자세를 취하라(OPEN posture)

팔짱을 끼거나 굳은 얼굴을 하지 말라. 어떤 활동도 중지하며 오로지 상대방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다. 이런 자세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듣고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06) Gerald Egan, *The Skilled Helper*, 69-70.

다. 몸을 꺾지도자들 향하여 약간 기울이라(LEAN toward)

이런 태도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흥미를 느낍니다”라는 몸의 언어이다. 몸을 뒤로 젖히는 것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게 된다.

라. 적절한 거리들 유지하라(keep appropriate DISTANCE)

알맞은 거리들 유지하여 상대방을 지원하려는 자세들 보여주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위협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마. 부드럽게 눈을 맞춰라(EYE contact)

너무 빨리 쳐다 보아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방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눈을 바라봄으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감정 등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의들 집중시키게 할 수도 있다.

바. 편안한 감정을 주라(RELAX)

영적 지도자가 긴장하면 꺾지도자도 긴장하게 된다. 긴장을 풀고 꺾지도자들 돕기 위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

## 2. 꺾지도자

꺾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역할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적인 내용을 말해야 한다. 즉 지난밤에 꾸 꿈이나, 기도하다가 느낀 감정 등 무엇인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어떤 내용들 가운데 문제가 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 등을 말한다. 꺾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들 정직하게 할 것이지 영적 지도자들 위하거나 돕기 위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 3. 관찰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하고 서술적인 평가들 정직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시간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관찰자 영적 지도자 꺾지도자가 정해



진 시간에 발표하도록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영적 지도 시간을 관리하며 “1분 남았습니다”라고 말한 뒤 “끝”이라고 하여 종료를 알려준다.

평가 시 신체적 자세와 함께 음성과 관련된 행동도 평가한다. 즉 어조는 평탄했는지 생동감이 있었는지 띄곤한 음성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음성은 너무 작은 소리였는지 큰 소리였는지 평가하고, 음질은 주저하는 음성인지 확고한 음성인지 심각한 음성인지 대충 넘어가는 음성인지 평가하고, 속도는 너무 빠르지 너무 늦은지 등을 평가한다.

## 제 2 절 영적 일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체험을 꾸밈없이 기록함으로 자신의 영적 삶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와 같은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꿈이나 환상이나 감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일지로 씌으로써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기회들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꾸어 감으로써 자신의 삶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영적 지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의식 속에 활동하는 꿈은 일어나는 즉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대개 잊어버리고 만다.

### 1. 영적일지의 유의<sup>107)</sup>

가. 자기발견과 성장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일지의 기록으로 자신의 내적 외적 상황에 대한 자료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들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 수집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과 의도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통제불가능의 상태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행동하게 됨으로 대단히 큰 상처들 상대방에게 주거나 파괴적인 결과들 낳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감정과 거리들 두고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들 동

107) 배정웅, “영적일지를 통한 자기발견,” n.p. 2006년 9월 인용. Online: <http://www.agapechc.org/자료실>.

하여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면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벗어 던지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투사(projection)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정과 의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한 탈출구와 속죄제물을 찾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죄와 악은 이 투사의 현장에 뿌리들 두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남에게 투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에 속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지들 씌으로써 자신의 내적인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이로써 진정한 자아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고통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쉽게 알 수 없다. 기록을 통해 진정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될 때 그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이로써 영혼의 치유가 가능해 진다.

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 맺어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내어야 하기에,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 일지들 쓰는 최종목적은 자기 발견과 성장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신도 발견할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자기 성찰로 자기 발견과 성장을 하려 한다면 오히려 허무와 자기 팽창으로 귀결될 위험도 있다.

## 2. 영적일지 기록하기

일기란 어떤 일들에 대한 매일의 기록이다. 그러나 영적일지는 특히 감정에 주의들 기울임으로써 한 사람의 내적 그리고 외적 삶을 반영하는 하나의 분별훈련이다.<sup>108)</sup> 일기는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영적일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일지는 내적인 삶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며 오직 나중에 읽음으로 그 깊은 의미가 분별된다.

영적일지들 보다 잘 기록하려면 의식적으로 자신 속에 있는 의혹, 감정, 혼돈 등을 성찰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실 보다 사실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사용된

108)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255.

시간을 비교해 보면서 성찰할 수 있다.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상상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감정은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 접근으로는 감정을 처리할 수가 없다. 현재 목회 상황이 어떤 이미지들 가지고 있는가? 떨기나무와 같이 삭막하다고 느낀다면 그 떨기나무를 뽑고, 시냇물가의 나무들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푸르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이미지들 그려본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상하는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진실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은 공포, 우울, 좌절 그리고 패배감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반면, 진실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이에 걸맞은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낸다.<sup>109)</sup> 부정적 이미지들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것이다. 이런 상상의 이미지들 영적일지에 매일 적어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 3. 영적 지도와 일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영적 지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기록할 때 중간이 세로줄을 그어 한 쪽만 쓰고 한 쪽의 남은 부분은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기록하도록 남겨둔다. 영적일지들 쓰는 것은 자기 내면의 순례의 한 모습이며 자기 고백의 한 모습이다. 또한 자기 내면을 들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 자기 내면을 드러내면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아의 가면을 벗어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지름길이 열린다. 영적일지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적 분별력과 비판력을 얻을 수 있다.

### 제 3 절 대화록(Verbatim)

대화록은 영적 지도 중에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일어났던 대화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정하여 실제 일어났던 내용 그대로 재구성하여 극본과 같은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이 대본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읽어봄으로서 영적 지도

109) William Backus,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는 자기 고백 워크북 (*Learning to Tell Myself the Truth*), 김재서, 신현경 역 (서울: 예찬사, 1997), 20.

자의 입장이나 피지도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 가질 수 있다. 영적 지도에 경험이 적은 영적 지도자에는 자신이 대화 중에 대화기법을 유효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화록을 작성하는 근본 목적은 지도자 자신이 영적 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이나 혼란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다. 그렇기에 피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대화록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들 몰보는 관리자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관리자가 영적 지도자의 쟁점과 질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대화록에는 실명은 사용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할 뿐 아니라 피지도자의 몸짓과 표정 등 비언어적인 반응도 기록한다. 또한 대화록은 중간에 세로 줄을 그어 왼쪽 부분만 적고 오른쪽 부분은 영적 지도자가 피지도자의 말에 혼란을 느꼈다, 당황했다, 기뻐다, 평안했다, 전율을 느꼈다, 두려웠다, 감사함을 느꼈다 등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한다. 또한 이 반응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자신의 평가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기록한다.<sup>110)</sup>

---

110) 부록 1. 모델 대화록 참조.

## 제 3 부

### 영적 지도를 교회에 적용하는 방안들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으로서 목회의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 화해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도자는 종과 같은 섬김을 통하여 화해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간다. 교회의 공동체의 각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하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 목회는 각 인격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할 만큼 귀한 존재임을 인식함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런 인격중심과 섬김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 질 때, 물질주의와 물량주의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진정한 영적 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지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이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보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웃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기 위해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진정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영적 지도를 받을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영적 지도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원칙으로 삼는다. 한 영혼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적 지도를 받는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성숙하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 전략이다. 모든 성도가 영적 지도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 지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유기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들 이룬다.

## 제 10 장

### 영적 지도를 통하여 새 가족 운영 방안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가정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까지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한 영혼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또한 들어온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로서 양육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을 그 어떤 사역보다 영혼 구원에 둔다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만남을 통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되도록 돕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영적 지도의 대상은 단지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자의 독특한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경험과 감정 안에서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1 절 불신자 친구들을 향한 참된 영적 안내자

현대를 일컬어 체험시대라 부른다. 누가 적절한 체험을 효과있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종교든 교육이든 사업이든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니 좀 더 자극적이고 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게 된다. 마약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과 거짓 영들이 더욱 심하게 활동하고 있다. 점점 사람들이 동양신비종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것이 특이한 체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나름대로 강한 체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 1. 누구나 영적 문제와 영적 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융은 “나의 인생의 후반기, 즉 35세 이후에 내가 대한 모든 환자들은 결국 인생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종교적 관점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치유 받지 못했다”<sup>111)</sup>고 고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교적 의미들 찾으려 하고 실제로 신비체험을 경험하지만, 그 체험들에 대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들의 문제들 주의 깊게 들어주면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느낌, 기도 중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체험 등을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피지도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자신의 거부되었던 어두운 면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 해답을 찾게 되기도 한다. 우리 스스로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듣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경험한 일과 감정에 공감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부되었던 감정이 치유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다.

### 2. 육적 친구관계들 영적 친구관계로 전환한다.

누구나 적어도 한 명쯤은 친구들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서 참 우정을 나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면에서 영적 친구로 다가가서 그들과 영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 가지는 것은 이웃 사랑의 좋은 실천이 될 것이다. 이미 세상에서 여러 가지 통기로 만나 알게 된 이들과 마음의 대화들 나눌 수 있다면 영적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아직 교회와 관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체험이나 영과 육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누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참된 우정으로 더욱 깊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영적 지도의 한 방식이 될 것이다. 우정으로 한 영적 지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폴 존스는 알파벳순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sup>112)</sup>

111)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a Soul* (NY: Harcourt & Co, 1933), 229.

112)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33.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Accept  
 당신을 믿는다: Believe  
 가장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한다: Calls to support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Don't give up  
 당신을 온전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nvisions  
 따지지 말고 용서한다: Forgive  
 조건 없이 준다: Give  
 깜짝 놀랄 방법으로 돕는다: Help  
 당신과 다른 사람이 삶을 나누도록 초대한다: Invite  
 그저 당신과 함께 하기들 좋아한다: Just like to be with you  
 정직하며 스스로를 알도록 계속 노력한다: Keeps you honest and self-aware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Love  
 당신을 중요하게 느끼도록 노력한다: Makes you feel important  
 결코 정죄하지 않고 당신이 책임을 느끼도록 돕는다: Never judges  
 지원을 제공한다: Offers support  
 당신이 낙심될 때 일으켜 세운다: Picks you up  
 당신의 상처받은 기억과 현재의 두려움을 잠재운다: Quiets the hurtful memories  
 특별한 날에 당신을 기억한다: Remembers you  
 당신을 께아 내리려 할 때 적극적인 면을 노래한다: Sings the positive things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Tells the truth with love  
 때때로 당신이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Understands you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 Values your thoughts and feelings  
 당신 편에 서서 걷는다: Walks beside you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자신을 혼돈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들 설명한다: X-plains the things you do  
 당신 자신이 들을 수 없을 때만 고함을 지른다: Yells only when 은혜, 아름다움, 기쁨, 평화,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당신을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Zaps you into excitement for

이렇게 우정의 훌륭한 특징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그 결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총체적 삶 그 자체이다.



## 제 2 절 새 가족과 함께 영적 순례를 하는 영적 친구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 중 그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어떤 이유이든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 가족으로 정착시키고 참 성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얼마간 교회들 다니다가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받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존 성도들과 교제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안내자들 붙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피상적이어서 새 가족의 영적인 필요들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함으로 그들은 교회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주면서 새 가족들에게 참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영적 지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 적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필요들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영적 친구로서 새 가족에게 다가간다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면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새 가족들을 위한 안내 역할을 위해 “안드레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목적을 충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 적응정도의 역할로서는 새 가족의 영적인 필요들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새 가족에게는 그와 마음으로 함께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드레 사역”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적 지도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새 가족을 만나며 그들과 어떤 관계들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고 새 가족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대화법을 습득하여서 영적 안내자 혹은 영적 친구로서 새 가족을 대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에 더욱 부합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여기 안드레 사역자들로 불려지는 이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미지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새 가족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각 영혼의 삶은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람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한 영혼도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 단지 획일적으로 기독교 교리들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오기가 쉽다.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영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교회 나눔의 시간을 영적 지도를 접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제 3 절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눔의 현장

교회는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섬김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 섬김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아오기까지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정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이다. 이것을 가장 잘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 놓은 것이 가정 교회이다. 처음 오는 태신자들에게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진정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저들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가정 교회는 단지 제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이제까지 전도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가정 교회는 먼저 한 사람을 가정 모임에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한결 쉽다. 그리고 큰 모임에서처럼 자칫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위선적인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외로움을 더해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온 그 영혼을 위해 온 가정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열어 환영하며 받아 주고 기도하면서 힘을 함께 모아 사랑의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통해 그 한 영혼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임의 성격을 경험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영적 인도를 받고자하는 마음

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 모임의 참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적인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모임이 활기차게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 제 11 장

### 영적 지도를 통한 목사와 성도의 영성 회복의 길 (심방과 상담의 측면에서)

교회는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르치며 인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영적 지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힘에 굴복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적절한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활동을 체험하도록, 또 그 분께 응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피지도자인 성도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이시기에 성령의 움직이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적 하에 심방과 상담을 하는 목회철학을 논하고자 한다.

#### 제 1 절 심방의 대안으로서의 영적 지도

한국 교회의 부흥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심방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시대의 격동기에 수많은 외적 내적 문제로 허덕이는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목사들의 심방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이로써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성도의 상황이나 목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로써 심방에도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 1. 성도들의 삶의 변화

현대 교회의 변화의 원인은 성도의 삶의 변화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성도들의 중심은 주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교회가 가정에서 성도들을 심방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 지도와 관리 방안에도 변화가 요구되어왔다.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1세들의 삶의 환경은 척박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부부가 함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 다녀야 하는 이민 삶의 현실에서 집에서 목회자들의 심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2. 개인 욕구의 다양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개인주의화와 산업화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은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인생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한다. 결혼 생활, 경제생활, 정신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교회가 이런 상처받은 심령의 문제에 대해 목회 상담의 문을 열어 놓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 중심의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을 뿐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신앙 지도는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 3. 목사 정체성의 변화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목사의 정체성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의 도입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목사가 단순히 직위와 직함의 권위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며 성도들에게 단지 말씀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행을 떠나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걷는 나그네로

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한 두 걸음 앞서 가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임무는 자신을 초월하여 우리들 소유하고 지도하시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일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할 때, 목사는 성도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마음의 깊은 대화는 영적 지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 제 2 절 심방의 대안으로서의 영적 지도의 한 예

다음은 목사가 심방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 낸 모습을 대화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최영희(가명)씨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는 유능한 미혼 여성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도박으로 인해 영희 씨는 무척 고민에 빠져 있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영희 씨와 대화하면서 영희 씨의 집안 문제에 어디까지 관여해야할 지 점검받기 위해 이 대화록을 기록하였다(A는 피지도자 D는 영적 지도자들 말함).

A: 요사이 저는 머리가 깨어지는 듯 아파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D: 늘 웃는 얼굴만을 보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뜻밖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일을 못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이 있군요.

A: 예. 다른 사람도 아닌 저의 어머니 때문예요.

D: 저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자상하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A: 맞아요. 저에게 더 없이 잘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말았어요.

D: 그래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어머니 때문에 딸이 크게 걱정하고 있을까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A: 늘 가정밖에 모르던 어머니였는데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박이 잦아지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울면서 따졌어요.

D: 그래서요?

A: 그랬더니 엄마가 도박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 들었을 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 D: 정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 A: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 D: 평소에 너무나 자상하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고, 도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 A: 늘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고 생각이 되어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 D: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특별하게 가지셨고 하나님께 어머니들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였군요?
- A: 그래요. 정말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느끼는 것 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어머니들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생겨요? 지금 보기엔 잘 못 된 일 같이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 D: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 A: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어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아요.
- D: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도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 A: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다시 소망이 일어남을 느껴요.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원망했던 마음이 좀 부끄럽게 느껴져요.
- D: 성령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만날 때에는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대화로 인해 피지도자의 삶에 닥친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고 고통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사의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크다.

### 제 3 절 영적 지도관계로서 목사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말씀 목회에서는 말씀 선포자로서의 목사와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성도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 말씀이 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는 맹점이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오늘날 생활의 다양화와 변화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사의 위기 상담 혹은 특별한 문제 상담이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 본위의 관계들 정립시킬 뿐이었다. 이런 관계들 보완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들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인도자, 안내자, 지도자의 관계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적절한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며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여서, 피지도자인 성도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일대일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한 성도와 영적 지도를 한 전과 후의 상태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피지도자인 성도의 첫 번째 대화록을 옮겨본다. 지은혜(A)는 35세로서 10개월 된 아들을 가진 지적인 여성이다. 박사학위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결혼하여 미국에 왔다. A는 심각한 두려움에 싸여 늘 심장에 통증을 느껴 왔다. 자궁에 혹에 있어 늘 허리가 아프고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기 병으로 인해 기도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 첫 만남이었다(A는 피지도자 D는 영적 지도자이다).

A: 가슴이 늘 두근두근 거리고, 통증을 느끼고 숨이 막힐 지경이어요. 아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D: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 아플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저는 늘 오빠와 함께 지내요. 그 오빠는 10년 전에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늘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생 함께



지내기로 생각했어요.

D: 죽은 오빠와 어떻게 함께 지내요? 어떻게 죽은 오빠가 올 수 있습니까?

A: 저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오빠의 시신 곁에서 하루 밤을 함께 보냈어요. 싸늘한 시체실에서요. 그런 후에 제가 3일을 짐질방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온 몸이 싸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꿈에 오빠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보는 것이 좋았어요. 죽은 오빠가 오니 소름이 끼치기도 했지만 자꾸 만나게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거의 10년의 세월동안 계속 되었어요. 오빠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꿈에 나타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빠를 늘 달고 다녀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이제는 낮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에는 바로 내 곁에 와 있어요. 때로는 전화가 걸러와 상대방에서 전혀 아무 말이 없으면 오빠라 생각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해요 “오빠 전화들 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가만있어” 마치 오빠가 상대 전화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실제 그 때 전화기는 끊어진 상태인 데도 말이에요.

D: 그런 자신을 알았을 때 자신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A: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들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했어요. 내가 꿈 이야기들 해도 친구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남편도 개꿈이라고 말하더군요.

D: 꿈에 오빠를 보았다고 했는데 오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A: 꿈에 나타나는 오빠는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오빠가 늘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제가 오빠들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약한 편이었고 부모님이 오빠들 끔찍이 사랑했어요. 꿈에 오빠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함께 걸어가다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빠에게 밥을 사서 먹이고 보냈어요. 또 한번은 오빠들 보낸다고 오빠들 업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갔어요. 이제는 오빠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꿈을 깨어 일어나 보니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랐어요.

D: 꿈에 오빠들 업고 다녔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였습니까? 실제로 업고 다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A: 실은 이게 꿈이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실제 잠이 들고 난 다음에 꾸는 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도 잔 것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실은 나의 의식은 깨어 있었으니까요.

D: 그 상태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나의 의식은 아직 깨어 있는 상태인데 몸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오빠가 와요. 때로는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나타나기도 해요.

한번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내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보니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혹사시켜서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D: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니 슬프셨군요. 그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십니까?

A: 몇 번 있었습시다.

D: 꿈에 외할머니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A: 제가 아기들 낳은 후에 아기들 안고 있는데 깊은 구덩이에서 외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아기의 이마를 만지셨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이 분들은 저의 조상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아기의 이마를 만지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내가 그 내려가는 구덩이들 내려다보았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이 보이지 않았고 캄캄했어요.

D: 아기의 이마에 있는 붉은 점하고 무엇인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꿈을 쫓 다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D: 오늘 저와 이야기함으로 어떤 마음이 됩니까?

A: 아무도 제 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도 있구나 생각하니 기뻐요.

다음은 일년 후의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대화록이다.

A: 어제 밤에 또 오빠들 만났어요.

D: 최근에는 오빠들 꿈에 보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오빠들 또 만났다고요?

A: 어제 밤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D: 그래요?

A: 이제까지 늘 꿈을 꾸고도 잘 분간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계속 죽은 오빠들 만나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우리 가정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D: 오빠들 아직도 전의 오빠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A: 저는 꿈속에서 죽은 오빠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오빠에게 “오빠는 죽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D: 왜 말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 오빠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도저히 저 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

D: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A: 너무나 불쌍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아들 때문에 도저히 오빠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D: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오빠의 실체에 대해 꿈에서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빠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로 대화하도록 하십시오.

영적 지도를 통하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꿈마다 찾아오는 죽은 오빠들 점점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 제 4 절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단지 문계에 대한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지도의 관계로 바뀌어질 때 진정한 지도자는 목사인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님 이시다. 목사도 성도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영적 지도에 임하는 것이다. 목사는 성도의 표정 하나에서도 그가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감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순간에 성령님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여야 한다. 영적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모두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피지도자의 영적 성장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영적 지도자는 관상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 체험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믿음 안에 매이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듣고자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피지도자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시며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끔 하신다.

영적 지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함에 있다. 그래서 영적 지도의 방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 제 5 절 영적 지도의 실제 진행단계<sup>113)</sup>

가능하면 한 번 만남에 한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적 지도의 진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1. 인사

매번 만날 때마다 인사로 시작한다. 쫄쫄이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환영의 분위기를 만든다. 선입견이나 과장된 표현이나 몸동작은 오히려 쫄쫄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목사가 쫄쫄이들을 알고 있으면 처음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 2. 기도

영적 지도시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이시다. 침묵 기도 등 다른 형태의 기도도 가능하지만 기도를 함으로 이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다름을 인식시켜 주는 기회가 된다.

##### 3. 질문

보통 쫄쫄이가 먼저 말을 시작하도록 기다려 준다. 때로 쫄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체험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 4. 본론

대부분의 대화는 쫄쫄이에 의존한다. 지도자는 쫄쫄이로 하여금 불쾌한 일을 상기시키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하게 하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보게

113) 배정웅, “영적지도의 진행단계,” n.p. 2006년 11월 인용. Online: <http://www.agapechc.org/자료실>.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도 한다.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꿈에 대해 물을 수 있고 특수한 정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때 영적 지도자가 피지도자들 돕는 유일한 목적이 피지도자가 하나님과보다 깊은 관계들 맺어가도록 인도하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5. 성령의 역사들 위한 공간 마련

어느 누구도 영적 지도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은 피지도자의 영적 체험 가운데서 정해져야 한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나 피지도자들 당황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들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 6. 제시

어떤 내용을 피지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다음 모임에 올 때 기도시의 느낌, 성경 본문에 대한 소감 또는 영적일지 내용에 대한 느낌 등을 과제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무거운 과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7. 마무리

기도로 끝을 맺으면 좋을 것이다.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또는 같이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 제 12 장

### 영적 지도를 통한 속회, 가정교회, 구역 등 소그룹 운영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다. 사람의 가장 작은 한 지체에 병이 나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소그룹에 전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다. 작은 모임에서 각 회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단순한 성경공부와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서가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모임을 유도해야 한다.<sup>114)</sup> 이것이 영적 지도를 통한 소그룹 운영방안이다. 항상 성령님이 모임에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 제 1 절 소그룹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목표 설정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의 지도자는 그 모임의 성격을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의 한 소그룹으로써의 모임은 작은 교회로써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는 항상 분명한 목표들을 가지고 모임 전체가 그 목표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 1. 관계 중심의 모임

이제 까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회가 분명

114) William A. Barry, *Spiritual Direction and Encounter with God* (NY: Paulist Press, 2004), 92.

한 복음의 메시지들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목표들 이루어나가는 수단에 있어서 큰 그룹이 아닌 12명 미만의 소그룹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들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소그룹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소그룹의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예수님 중심의 모임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으로 인도하고 더욱 깊은 사귄이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임의 중심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기도들 많이 하고 성경 공부들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생활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 주의가 되어버리기 쉽다.

## 제 2 절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그룹 지도자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참여자들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요구되어져도 안 된다. 오히려 지도자는 오히려 좋은 긴잡이 노릇을 하면 된다. 그 모임이 추구하는 방향이 원하는 곳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들 늘 살펴야 한다. 한 개인의 신앙의 성향에 따라 가다보면 참된 방향을 잃게 된다. 특히 다른 셀 모임을 인도하는 지도자처럼 그룹의 식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도 없다. 가정 교회에서의 지도자(가정 교회에서는 이들을 목자라고 부른다)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역할은 가정에 오는 이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식구로 맞이해 주고 그들에게 영적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위한 섬김을 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가정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곧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로서의 섬김과 사랑과 배움은 목자의 맡은 직분이다.

### 제 3 절 소그룹의 나눔의 시간에 스토리텔링과 영적 지도를 접목하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는 생명 있는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기보다 교회로서 조직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는 교회주의에로의 변질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잘못을 없애기 위해 교회 안에 작은 모임을 만들어 유기체로서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현재 교회에는 작은 교회 모임을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제자 훈련의 다락방이나 셀 모임이나 G-12나 D-12, 가정 교회 등 여러 가지 소규모 형태의 모임을 가정으로서 각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1. 현 교회의 문제점

지금의 교회 조직을 통해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친구를 사귀면서 이 세상을 이길 만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개인의 영혼을 향한 구조로 이루어졌기보다 지도자들의 교회 운영을 수월히 하기 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회 안에 흔히 생기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인 성경공부방식으로 그 심령의 변화가 거의 없다. 열매가 거의 없다.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교회에 데리고 와도 남는 이들이 별로 없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힘들다.

모든 사람이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기가 힘들다. 교회의 봉사직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교인들과의 교제가 피상적이어서 진정한 나눔이 없다.

성령의 역사보다 개인의 능력과 열심을 앞세운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 즉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잘 이루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거센 썩의 물결을 이기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줄 힘이 없다.



## 2. 가정교회 모임의 핵심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 교회들은 큰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쉼 모임 중 가정 교회는 소규모의 모임으로 성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보다 가정으로 먼저 초대하기가 쉽고 처음 참여하는 이들도 어색함이 없이 가정 교회 일원들과 쉽게 사귄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모임 시간에 앞서 먼저 식사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도자들은 참석자들을 마음 깊이 섬기는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가정 교회는 무엇보다 그 지도자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참석자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들 많이 한 사람이나 교회 직분자 중심의 지도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가정 교회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으로 교회들 오래 다니지 않아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가정 교회의 모임에는 찬양과 성경공부, 기도와 전도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나눔의 시간이다.<sup>115)</sup>

첫째, 나눔의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감사거리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하도록 한다. 특별히 스토리텔링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의 진실함과 신성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경험한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는 권위를 부여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감정을 열어 주고 우리들의 문제들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하며 그것들에 억눌리지 않도록 한다.<sup>116)</sup>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7)</sup>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 나눔으로써 삶 속에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나누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sup>118)</sup> 주일 예배 중심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데 나눔의 시간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숙과 놀라운 변화

11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81.

116) 임상필, “북한이탈주민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영적지도,” *홍성민목사교회기념논문집*, 한민족평화연구소 편 (서울: 도서출판 평화와 선교, 2006), 237.

117)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250.

118) William A. Barry, *Spiritual Direction and Encounter with God*, 103.

들 경험하게 된다.<sup>119)</sup> 무엇보다 참석자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들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나눔의 모임에서 단체적 영적 지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이야기 할 때, 모인 사람들은 현실 그대로 개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와 참여로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될 수 있다.<sup>120)</sup> 이런 과정 속에서 발표자의 문제에 대해 나눔의 시간에 대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가해야 한다. 오직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들 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지도를 진행해 나가는 핵심이기도 하다.

셋째, 가정 교회 지도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기도가운데 경청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신이 인도하는 모임의 공동목적을 설정하도록 도우며, 늘 상황보다 나누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도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니 반드시 많은 영적 지도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모임과 절차에 대해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sup>121)</sup>

넷째, 나눔의 시간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들은 성령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고 그 모임에 생명을 불어넣게 된다. 단순히 쪼그 많은 이들이 모여 자기들의 문제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핵심에 둔다. 물론 여기에 조심스런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은 섬김의 훈련의 시간으로서도 유의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들 인내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섬김의 한 모습이다.<sup>122)</sup>

마지막으로, 진행은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발표기회를 준다. 칠판, 발표(15분 정도), 칠판, 응답(모임의 응답), 칠판으로 한 사람당 30분 정도 할당한다. 그러나 나

119) 임상필, "북한이탈주님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영적지도," 238.

120) Rosemary Dougherty, *Group Spiritual Direction* (NY: Paulist Press, 1995), 142.

121) 배정웅, "그룹 영적지도," n.p. 2006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agapechc.org/자료실>.

122)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00.

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임에서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음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 제 4 절 회원들의 자기 역할의 분명한 인식

먼저 가정 교회 안에 들어온 회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 가정 교회에서 받았던 섬김을 이제 새로 온 사람들에게 베푼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섬김을 몸으로 받았기에 몸으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도자들의 몸소 실천하는 섬김을 통하여 몸으로 배웠기에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 교회의 모습이라 여기게 되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면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갚고자하는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가정 교회 나눔의 시간에 스토리텔링과 그룹 영적 지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새로 온 이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오직 소규모의 그룹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기본적인 사랑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그리스도 사랑과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 가는 좋은 대안이 된다.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건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 고통당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 제 13 장

### 영적 지도로서의 예배, 교육, 위원회 및 제직회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예배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배와 교육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로 이어졌고 곧 나라의 멸망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예배만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곧 절대자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나 교육을 통해 위기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도록 격려해야 한다.<sup>123)</sup>

이 장에서는 목회 사역에 중요한 요소인 예배와 교육 부분에서 영적 지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예배와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기에 이 목적을 위해 예배와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영적 성숙을 위한 영적 지도의 모임이 되도록 그 기회들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제 1 절 영적 지도로서의 예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오는 세대에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지만, 아벨은 예배를 생명 바쳐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는 세대에 참 예배자의 모델이 되었다. 예배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예배는 교회 생활의 표현이며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배를 위하여 모인다. 예배는 성도들의

123) Jusdon J. Swihart and Gerald C. Richardson, *위기상담 (Counseling in Time of Crisis)*, 기독교상담시리즈 5, 정태기 역 (서울: 두란노, 1995), 221.

일차적인 행위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다. 예배가 활발하게 드러졌던 시대에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믿음은 식어져가고 교회는 화석화 되어갔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들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오늘 교회 안에 예배는 어떠한가들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 1. 현 교회의 예배는 갱신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동일한 순서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 회중을 즐겁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점차적인 불만족, 일률적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나 감정호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한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다.<sup>124)</sup>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은혜요 성도의 특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러질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마음이 통하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성도들은 무감각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 2. 예배를 통하여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는 목회적 몰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배속에 세례와 주의 만찬 등의

124)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2.

의 전적인 면을 다시 부각시킴으로 목회의 범위를 더 풍성하게 넓힐 수 있다. 이로써 목회의 중요한 기능 즉 치유, 보존, 안내와 화목케 함의 영적 부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오는 기쁨과 환희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기능이다.<sup>125)</sup>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이루지 못하고 더 큰 순종의 모습으로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 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행위다.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한다.

#### 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진실한 반응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자신을 개방함으로 예배에 나아간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찬송, 기도, 침묵 시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비판하거나 방관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회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예배가 단지 형식과 의식으로만 보일 뿐이다.

#### 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sup>126)</sup>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림으로 인한 가벼운 마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큰 용기, 세상과 구별되고자하는 새로운 의지, 삶의 새로운 목적발

125) William H. Willimon, *Worship as Pastoral Care* (Nashville: Abington Press, 1979), 47.

126) Dallas Willard,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204.

견 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

### 3.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한 영적 지도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들 경험하면서 개개인들의 심령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지도의 기회들 가질 수 있다. 말씀강조로 인해 희미해져 온 교회의 중요한 전통인 세례와 주의 만찬 등 제사장적 기능을 예배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가. 성경과 설교

성경봉독과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근원적인 요소이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들 전달하는 요소이다. 성경 자체도 영적 지도의 기능을 한다.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기 때문이다.<sup>127)</sup>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 특별한 순간에 그 의미들 깨달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들 경험하는 것은 설교들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이다. 때로 성도들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설교가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기쁨과 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영적 지도의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설교는 가르침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 즉 창조, 성육신, 죽음, 부활, 종말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건이다.<sup>128)</sup>

#### 나. 찬양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찬양이다. 예배에 사용되어진 많은 시편찬송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나 한 개인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배에 사용되어질 때에는 시편의 기자의 경험을 재창조하는 효과들 가져온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시93, 96, 97, 99편)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는 것이요, 자신의 삶이 그 경험의 의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참회시와 찬양시도 동일하게 경배

127)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65.

128)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154.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sup>129)</sup>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찬양은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반감시키고 우리들 지탱시켜 주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찬양은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준다.<sup>130)</sup>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들 노래한다. 이때는 계급이 철폐된다. 강한 사람은 낮아지고 약한 사람은 새 자유를 받게 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찬양은 심령으로 부들 수 있어 우리 존재들 깊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찬양은 영성 개발에 있어 중심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도 형식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다. 기도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기도이다. 공중 기도는 신자들의 개인 기도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준비시키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개인 기도의 자아 중심의 경향을 깨뜨리고 친구와 가족의 울타리들 초월하여 넓은 범주의 사람들의 필요들 일깨워주기도 한다. 우리의 죄 목록에는 교회의 죄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공중기도는 나의 죄와 너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는 공동의 인간 상황의 한 부분이며 그래서 공동의 신적 용서들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sup>131)</sup>

목사는 전체 회중의 고통과 슬픔, 기쁨을 아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제사장적 직무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서 영적 위로와 안위와 인도들 얻을 수 있는 기회들 얻게 한다.

#### 라. 성례전

세례와 주의 만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례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나게 한다. 주의 만찬은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들 기억하며 재생하는 행위이다. 이런 의식의 목적은 처음의 것을 모방하면서 이들 기념하고 기억하며 찬양하기 위함이다.<sup>132)</sup>

129)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122.

130)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77.

131) William Willimon, *Worship as Pastoral Care*, 91.

132) Ibid., 58-63.



유아세례는 인간의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세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도 세례 받은 자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언함으로써 나그네 같은 믿음의 삶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 두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의식으로서 친교 식사의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의미도 있고 장차 천년 왕국에 가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의미도 있다.<sup>133)</sup>

## 제 2 절 영적 지도로서의 교육

목회에 중요한 한 요소가 교육이다. 목사는 교사이기도 하다. 가르침은 물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가장 작은 소그룹의 장들도 그 모임에서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한 가르침이 주를 이루게 될 때, 모임은 사랑으로 열려지게 된다. 사람은 말보다 봄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르다. 단지 교사가 학생에게 정보전달자의 수준에 머문다면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교사들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이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자신에 대한 무능력감과 실패감을 더욱 안겨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교사가 많은 것을 가르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자칫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참된 목적이 아니다.

### 1. 교육의 목적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름 수밖에 없다. 최우선은 선포로써의 가르침이다. 선포되어지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지만, 그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희생적 사랑의 말씀이다. 교육은 또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제자를 양육하고자 함에 있다. 가르침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삶의 가능성을 심어주어 이제까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

133)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120.

의 마지막 목표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들 계속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길러서 세상에 남겨두셨다.

## 2.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에 교회 교육이 지식 교육으로 치우치게 될 때 경쟁 관계가 조성될 수 있고 이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간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존경과 돌봄의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 학생은 자신의 존재가치들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영적 성장의 기회들 얻게 된다.

사실 가르치는 내용은 그 학습자의 인격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학습자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받기들 거부해 하거나 힘들어 할 때는 학습자들 위하여 잠시 미룰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진정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3. 영적 지도로서의 가르침

기독교 교육의 참된 목표들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해 영적 지도의 개념을 교육 과정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 가. Lectio Divina(거룩한 독서)와 영적 지도

학습자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추구에서 벗어나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과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으로 사막의 수도사들과 동방교회 수도사들에 의해서 핵심적 영적 훈련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던 거룩한 독서들 가르칠 필요가 있다.

유진 피터슨은 거룩한 독서들 정의하기를 “단순한 독서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종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들 들려주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아이들 낳고 죽은 자들 묻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리들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그 텍스트들 살고자 하는 독서방식"이라 하였다.<sup>134)</sup> 이런 독서는 단순히 연구와 조사들 통한 지식추구들 목적으로 하는 성경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어 영성을 형성하는 성경읽기이다.<sup>135)</sup>

거룩한 독서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렉치오(lectio, 독서 - 텍스트들 읽는다), 메디타티오(meditatio, 묵상 - 텍스트들 묵상한다), 오라티오(oratio, 기도 - 텍스트들 기도한다), 콘템플라티오(contemplatio, 관상 - 텍스트들 산다)이다.<sup>136)</sup>

렉치오들 통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메디타티오들 통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오라티오들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며, 콘템플라티오들 통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텍스트들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는 것이다.<sup>137)</sup> 그러나 마지막 관상에서는 자칫 내부지향성향에 빠져 잘못된 초자연주의들 추구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스스로들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기 환상의 문제와 잘못된 열심을 교정하기 위해 영적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하다.<sup>138)</sup>

거룩한 읽기의 중심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 기획에 자신을 열고, 왜곡된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변형되는 것이다.<sup>139)</sup>

이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학습자의 삶에 녹아지게 될 때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교사는 성경의 거룩한 읽기들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들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 나. 학습자에게 주의들 기울임

학습자에게 주의들 집중하는 것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생이 배움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곧 그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엔 수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들 기울일 때 학습자들은 교사들 신뢰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

134)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6), 156.

135)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197.

136)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156.

137) Ibid., 186.

138)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208.

139) 양금희, "기독교교육적 읽기로서의 Lectio Divina," *잠신논단* 20 (1993), 433.

발견에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교사의 의도는 특정한 내용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 다. 학생들의 성숙이 목표

영적 지도로서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성장이다. 가르침은 분명히 신앙생활의 변화들 목표로 한다. 교사는 몰보는 관심을 가짐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변화들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강요나 통제들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역사들 통해 인간의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 라. 몰봄의 형태로써의 가르침

교사는 늘 학생들에게 주의들 기울이면서 참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쓴다. 학생들은 삶에 수반되는 기쁨과 슬픔을 스트레스나 권태, 수업의 어려움으로 표현한다. 몰보는 교사는 이런 것에 주의하며 교실 밖에서의 문제들 질문함으로써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전화나 메모들 전해주면서 저항을 돌파하여 학생들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단순히 준비된 자료들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아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교사로서의 목사는 학생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서 행동하며 이 새로이 변화된 생명의 산파로써 봉사하게 될 것이다.<sup>140)</sup>

### 제 3 절 영적 지도로서의 위원회 및 제직회 운영

오늘날 교회는 많은 위원회, 제직회, 당회 등 공식적인 모임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임들은 단조롭고 지루하여 참석하기들 꺼린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모임들에 대해 다음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과연 이 모임이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취소하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참석자로 하여금 신앙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모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효과적인 모임은

140)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140.

참석자들 마음에 좌절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모임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참석자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될 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가 있으면 조그마한 문제에도 집착하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어 교회들 어지럽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를 삭이며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낸다. 그리고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지 않음으로 반항을 표현한다.

모든 회의들 로버트 의사 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을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결정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영적 성장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들 주기는 힘들다.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단체적 영적 지도들 통한 회의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이다.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먼저 던져졌다. 그 질문은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생각이 최선일 것인가가 아니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였다.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sup>141)</sup> 이렇게 단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의 원리는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 일치에 기반을 둔다.<sup>142)</sup> 이렇게 얻은 결론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수긍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이 성령의 지시들 통한 사무 결정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일리노이의 르바 플레이스 웰로우십(Roba Place Fellowship), 뉴욕의 형제회(Society of Brother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143)</sup>

실제로 교회 여러 모임에 봉사함으로 영적 성장을 기대하지만, 봉사들 마친 후에는 실망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와 더욱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면서 그 모임을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41) W. Paul Jones,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362.

142)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59.

143) Ibid., 260.

## 1. 위원회나 제직회 등을 단체적 영적 지도 시간으로 바꾸기

### 가. 모든 모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목사들은 교회의 모든 모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이런 상황이나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우선 모임의 성격을 결의해야 할 의제가 중심이 아니라, 모인 사람의 하나님과 교제와 성숙이 중심이 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즉 신앙 성숙의 기회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형제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겸손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sup>144)</sup>

### 나. 모임에 변화들 가져오기 위한 방법

#### (1) 모임의 성격과 진행절차들 바꾼다.

먼저 모임이 자연스럽게 참석자 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서로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 그들에게 입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 부여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심과 나눔이 단체적 영적 지도의 출발점이 된다.<sup>145)</sup> 의사 결정에 있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지만 항상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며 언제든지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들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기도 시간을 더욱 오래 갖는다.

회원들의 기쁨과 슬픔과 염려들 함께 나누는 간구 시간을 가진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서로들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모임 초점이 의사 일정이기보다 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로 옮겨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단체적 영적 지도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체적 영적 지도는 모임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특별한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돕는다.<sup>146)</sup>

144) Richard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264.

145) Ibid., 263.

146)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172.

## 2. 한 모임의 의사진행의 예<sup>147)</sup>

영적 지도를 통한 영적 성숙을 목적으로 한 모임의 진행을 생각해 보자

### 인사

시편 말씀 낭독

조용한 시간

참석자 점검

### 기도

서로를 위한 나눔의 기도

의사록 및 의제 승인

찬송

### 문제제시

개인의 성장력 나누기

주요한 보고 사항

성경 말씀 나누기 및 영적 훈련 실천

### 평가

업무상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실행

조용한 시간

추후에 계속되어야 할 행동 고찰

회중을 위한 기도

다음 모임을 위한 계획

선물의 나눔: 각자가 모임에서 얻은 것

### 폐회

---

147)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173.

## 찬송 혹은 시편 낭송 속도

### 3. 모임을 단체적 영적 지도로 바꿀 때

현대에 교회의 존속은 소그룹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요구가 최대한 만족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인 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모임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점점 모임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모임이 더 즐거워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의 이러한 경향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체험한다면 더 이상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목사는 교회의 소그룹을 영적 지도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대 일 영적 지도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제 14 장

###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

영성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영성을 새롭게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조명하면서 사회를 향한 영적 지도의 의미를 논하고, 구체적으로 구제와 지역봉사,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 등 사회 참여를 통하여 이 사회에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제 1 절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적 지도

교회와 세상의 관계들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역할을 행하도록 하는 기본 요건이 된다.

##### 1. 세상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시대였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는 교회로부터 사회 전반의 분야들, 즉 정치 사회 문학 경제를 때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한 교회권력의 속박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필요조치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혀 함구해야만 하는가? 이들 위해 성경에서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며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경험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며 그렇게 할수록 그 영혼의 활동의 범위는 좁아지게 된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은 없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만물은 영적이 되며<sup>148)</sup>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제자도는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부, 경제, 문화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도록 한다.

## 2. 목사는 사회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영적 지도함.

### 가. 다른 사람을 향한 교만을 조심하라.

사회 문제들 직시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힐 때 그 열정에 동참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사회 병폐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에 집착한 나머지,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독선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혹은 오직 특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른다. 새로운 현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뒤로 물러서야 할 때는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나. 분노를 조심하라.

개선되지 않는 사회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때로 좌절과 분노를 가져온다. 예언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게 되면 선한 의도까지 망치게 된다. 분노는 변화가 필요한 문제에 주의들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향 한 분노에 분개하며 결국 그 분개는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sup>149)</sup>

### 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게 될 때 다른 사람과 상

148)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247.

149)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150.

황을 통제하고 규제하고자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통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는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과 바른 관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3. 세상을 향한 목사의 역할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심을 인식할 때 사회들 향한 공동체의 사명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비록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실망케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 제 2 절 약자들의 필요들 채워주는 사랑의 손길을 통한 교회의 영적 지도

인류의 많은 고통의 원인은 사회 제도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인간의 본성인 죄에 있다. 죄를 범한 자는 인간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의 뿌리가 소멸되고 악의 근원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인간 사회 안에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신분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약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들에게 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의 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 즉 약자들의 필요들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적 지도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조선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교회의 영적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 적응하는 가운데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Paul Ricoeur에 의하면 자아

정체성 형성에는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 삶을 시간 속에서 경험한 역사라는 축과 비유와 같은 허구라는 두 축 사이에서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sup>150)</sup> 이야기들 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새로운 서술형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교회가 이들의 이야기들 주의 깊게 들어줄 때 이들도 스스로 자기 이야기들 재구성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삶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영적 지도의 한 방법이 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함으로써 가난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집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들 운영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병자들이 있는 가정을 파악하여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방문할 수 있다. 이로써 성도들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이 올수록 세상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마24:7) 이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종말의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제 3 절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 세상은 떠들썩하다.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쓰나미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의 오염 즉 물과 바다와 강이 오염되어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 이런 지구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150) 이대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정체성의 재형성에 관한 연구," *홍성민목사교회기념논문집*, 한민족평화연구소 편 (서울: 도서출판 평화와 선교, 2006), 217.

### 1. 피조세계들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먼저 물질 세계들 창조하셨고 후에 인간을 그 곳에 두셨다.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주와 인체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다. 과학의 발달을 통해 이 비밀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망원경의 천체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남을 알게 되었다. 별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그 크기 또한 엄청나다고 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주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가하면 들에 핀 작은 꽃 속에도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작은 세포의 세계도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롭게 창조된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을 인간에 두셨다. 수많은 별에 두시지 않았다. 지구의 땅 밑 감추어진 금과 보석에 두시지 않았다.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창조물에 불과하였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인간이다. 비록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 재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 사랑하고 계신다. 이 세계들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 가르치고 계신다. 피조세계들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이다.

### 2. 환경의 경고들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마24장)이 지금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들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실 것이다.

영성 지도들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 세상 만물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대적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회복하는 관계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망가져 온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 잘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자연 환경을 통해 배우게 된다.

## 제 15 장

### 요약과 결론

#### 제 1 절 요약

영적인 문제는 현 시대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최대의 위기들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처럼 혼돈에 빠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 개인을 향한 영적 지도의 필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1부에서 영적 지도의 필요성과 정의, 그리고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기초를 논의하였다. 각 시대마다 목회 중심은 바뀌어왔다. 이는 복음을 받는 이들의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같은 영적 혼돈과 영적 갈망의 시대에는 기독교 영성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에 그 중심이 있다. 따라서 목회도 성도들에게 이런 기독교 영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영적 지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영적 친구, 영혼의 목자, 영혼의 의사, 멘토, 등의 비슷한 용어로 불리는 영적 지도는 자신의 영적 삶에 주의할 기울이기 원하는 한 사람(피지도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집중하여 영적 분별력을 키워감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온전히 그 임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지도자)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지속적인 관계들 의미한다.

영적 지도의 목적은 각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일치들 이루어나가는데 있다. 영적 지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영적 체험과 그 체험에 대한 영분별에 있다.

영적 지도와 상담은 인격적인 상호관계에 기초하는 진행과 대화기법을 사용하는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상담은 문제중심이고 영적 지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중심이며,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나 영적 지도는 성령님을 제일 지도자로 인정하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영적 지도는 성경에 근거한다. 우리는 구약 시대엔 선지자와 서기관, 지혜자나 부모들 통해, 신약 시대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영적 지도가 행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적 지도의 모델은 물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각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의 영적 욕구와 영적 재능을 알고 격려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심으로 영혼의 참된 변화들 촉구하셨다.

영적 지도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사막 교부들이 제자들에게 영적 지도를 행하였고 이것이 제도화되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종교개혁기에는 사제주의에 대한 반발로 영적 지도가 위축이 되었지만, 칼빈도 개인적으로는 영적 지도를 하고 받기도 했으며 루터나 요한 웨슬리도 가정이나 속회에서 영적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오늘날 영적 지도는 가정의 위기와 영성에 대한 혼란, 내면의 자아 추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체험적이며 역동적인 기독교를 위해 영적 체험과 성경적 원리들 조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체험, 은혜가 영적 지도의 일차적인 관심이다. 신구약 말씀은 신앙공동체의 체험과 그 해석이다. 우리의 체험도 결국 자기의식과 인식에 의한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은 분별되어야 한다. 또한 영적 지도의 목적은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시 지도자와 피지도자는 피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지는 느낌에 관심을 갖는다.

영적 지도가 이루어질 때 영적 지도자는 관상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원칙, 자기 신앙을 피지도자에게 주입하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피지도자와 동행하고자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피지도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공감의 형성될 때에 신뢰감이 생기게 되며 영적 지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창조적인 들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2부에서는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들 다루었다. 쫓지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들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신적 체험이나 기도의 삶, 무의식에서 나온 꿈 등이 있다. 첫 번째 만남은 이제까지 쫓지도자의 영적 체험이나 기도시의 느낌 등을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쫓지도자가 자신의 체험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들 맺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런 저항은 쫓지도자의 내면을 더 깊이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들 절실히 구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기에 영분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상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시의 동료인 인격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좋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들 상상하며 이 때 떠오른 자신의 감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신앙체험의 분별의 대 원칙은 그 열매들 보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악령의 열매는 증오와 이기심이다. 또 다른 분별의 원칙은 우리의 감성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다. 충분히 헌신된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분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감성은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그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로울라의 이나시오는 영성적 위안과 영성적 낙심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감정을 중요시하였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영적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 배우려는 자세, 자기 성찰과 인격 성숙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관계 증진을 위한 넘치는 따뜻함이나 목표들 향한 협력 관계의 형성 능력도 중요한 자질이다.

영적지도자와 쫓지도자의 관계는 성격차이나 성격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쫓지도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함을 통해 영적 지도들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쫓지도자가 지닌 성격장애들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영적 지도자는 쫓지도자와의

관계들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적 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비결은 대화 기술에 달려 있는데 썬지도자가 말하는 사실보다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감정에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와 썬지도자의 관계의 장애요인으로는 전이와 역전이, 투사가 있다. 썬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인물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왜곡을 전이라 한다. 이런 전이는 썬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하게 한다. 역전이는 썬지도자의 행동이나 전이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부적절한 반응이다. 투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억눌린 감정을 다른 사람을 속죄양으로 삼고 거칠게 공격하는 경향이다. 자기 문제들 타인에게 투사하여 공격함으로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반응이다.

영적 지도자는 천부적인 은사들 가진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삼두체계, 영적일지 혹은 대화록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될 수 있다. 삼두체계는 영적 지도자, 썬지도자, 관찰자의 역할을 교대로 해봄으로써 영적 지도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익힐 뿐 아니라 썬상담자의 역할이 되어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훈련체계다. 영적일지를 쓰는 것은 자기 발견과 성장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또한 대화록은 영적 지도 과정에서 지도자와 썬지도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실제 일어났던 내용 그대로 재구성하여 극본과 같은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다. 대화록을 작성함으로써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 시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감정과 느낌에 대하여 감독으로부터 영적 지도들 받을 수 있다.

3부에서는 영적 지도들 교회에 적용하는 방안들을 다루었다. 한 영혼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적 지도들 받는 초보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성숙하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 지도들 통한 목회 전략이다.

불신자들에게도 영적 지도는 가능하다. 누구나 영적 체험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체험이나 영적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귀담아 들어줄 때 육적인 친구가 영적 친구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계로 인도하고자 할 것이다. 교회는 새 가족에게 영적 친구로서의 영적 지도자들 연결해 주어서 그

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또한 가정 교회의 목장을 통한 사랑의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온 목원들을 통한 그룹 영적 지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한다.

심방의 대안으로 영적 지도를 활용한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개인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심방보다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가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영적 지도는 소그룹 모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속회나 가정 교회 등에서 평신도 지도자는 그 모임의 성격을 예수님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모임 참여자들이 서로 그룹 영적 지도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별히 나눔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서로에게 스토리텔링과 영적 지도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또한 서로의 영적 체험을 나눔을 통해 영분별의 좋은 시간으로 활용한다.

영적 지도는 예배, 교육, 위원회와 같은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개방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도록 한다. 성경 봉독과 설교, 찬양, 기도, 성례전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 교육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영적 지도의 관계로 나아갈 때 참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독서들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식 교육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과 처지들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원회나 제직회도 회의 중심의 모임보다 회원 서로가 하나님 체험을 나누는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으로 대체되도록 한다. 개인의 영적 체험에 서로가 관심을 가질 때 모임은 더욱 활기차게 된다.

영적 지도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곧 세상을 영적으로 지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 범한 인생을 사랑하신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영적 교만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고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하며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조급함을 피해야 한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께

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여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영적 지도는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돕는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환경의 파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사랑의 돌봄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본다.

## 제 2 절 결론

교회들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악순환의 과정에서 영적 지도를 접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가 표면적인 성도의 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목회들 할 수 있는 방안임을 믿고 열심히 영적 지도를 통한 목회들 해 왔다. 물론 많은 시행을 착오를 거쳤고 지금도 미완성의 단계에 있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지도를 통해 소중한 영혼들이 그 영혼의 아픔과 방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을 체험하였다. 성공위주의 목회에서 떠나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예수님의 목회들 닦아보자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들 물으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들 하였는가 그 질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영적 지도가 교회의 외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지도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진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생의 길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 사역을 인정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특별히 소그룹모임을 공부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여는 모임으로 이끌어가니 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을 회의 위주의 모임에서 영적 지도 중심의 모임으로 전환하니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 질 수 있는 기회들 가지게 되었다.

교회의 작은 규모로 인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목표들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끌고자 한다.

## 부록

## 모델 대화록(model verbatim)

배경: 안젤라(35)는 기혼여성이며 두 자녀의 어머니이다. 지난 2년 동안 3주 또는 4주에 한번씩 영적 지도를 받아왔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능한 여성이나 낮은 자존감과 자기 확신의 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 13년 동안 수차례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음으로 고통을 당해왔고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다. 그녀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은 없지만 종종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다양한 강도의 우울증을 겪어 왔다. 때로 그녀는 희망에 차기도 하지만 다른 때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심리치료와 영적 지도를 통해 그녀의 밝은 시간은 길어지고 어두운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

안젤라는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깊이 갈망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안젤라는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영적 지도와 기도들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인 인식 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지배적인 남성상이며 자신이 잘못을 범할 때 감시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방관적이며 무관심한 분이시고 자신의 고통을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였음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서서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안젤라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체험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몰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또한 자신을 격려하기 원하시며 갈등의 시기에 자신을 가까이 돕기 원하시는 분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 대화록

## 지도자의 반응

## 대화

염려스러움

안: ....마치 내가 4겹으로 둘러싸인 벽에 갇힌 것 같았어요. 마치 인디언 테피와 같이 완전히 나들 둘러싸고 있었어요. 꼭대기조차 막혀 있었어요. 철저히 4겹

이였지요

약간 두려움

지: 거기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안: 완전히 어두움이었어요. 나는 완전한 어두움에 싸여 있었고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 당신 혼자였고, 하나님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군요.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  
것이라는 언급이 있어  
다행이다.

안: 그래요. (잠시 멈추고 눈을 감는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 위 아득한 곳에 계셨어요.

염려스러움/안됐다. 안: 그래요. 그분은 동상과도 같이 방관적이고 차갑고  
무감정이었어요.

지: 방관적이고 차갑고 무감정이었군요.

그녀의 착각에 두려워  
진다.

안: 그래요. 말하자면 그분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고 계셨지요. 그분은 개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것과도 같았어요. 그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지요.

지: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전혀 세상일에 관여들 하지 않는군요.

두려움

안: 그래요. 그분은 차갑고 동상과도 같아요.

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동상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고 무관심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받았나요?

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만약 그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지요.

- 지: 당신이 “그렇게 내버려둔다”고 말했다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 분노를 느끼는 것을 보니 기쁘다. 안: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요. 무언가 나를 성가시게 만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분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지도자는 계속해서 안젤라가 자신의 성가신 부분과 무력감과 절망적 감정을 말하도록 도왔다)
- 소망과 두려움의 교차된 감정 지: 이제 좀 시간을 내어 저 멀리서 무감정하게 몰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당신이 내게 했듯이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하나님께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잠깐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녀가 분노와 절망이란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때로는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생생한 감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도록 초대하고 있다)
- 눈물에 감동을 받고 있다. (안젤라가 8-10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나누었다. 드디어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녀가 자신의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들 나누기 시작한다)
- 안: 방금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동상을 깨뜨렸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무감정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 전율이 일어난다. 지: 동상을 깨뜨렸군요. 그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 안: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내 속에 울적한 느낌이 솟아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멀리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무언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다른 동상이 내 마음 속에 다가 왔어요. 즉 내가 몇 년 전 도자기 시간에 만들었던 예수님의 상이 다가 왔지요. 나는 정말 그 상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예수상을 기억할 때 마치 그 분이 나를 향해 팔을 펴시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분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분에게서 빛이 나왔어요.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보셨어요. 그분은 살아있었고 활기가 있었지요.

지: 세상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잠시 멈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미소 지어 주셨군요.

주님 몰보심에 감동함

안: 그래요. 마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 행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지: 예수님께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해 하며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안: (눈에 눈물이 흐르며) 나는 정말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진정 그분께서 나를 몰보신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었어요. 나는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보살핌을 받고 있고 그분과 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함께 이러한 경험을 관상했다. 안젤라는 그날 자신의 짐이 벗겨진 느낌을 가지고 그 장소를 떠났다)

대화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 비록 안젤라가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감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지도자는 그녀의 우울증이 가지는 영향을 좀 더 알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안젤라의 우울증은 때때로 너무나 강력하여 지도자 자신도 그 우울

종의 강한 힘에 압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는 자신이 그 두려움에 쉽사리 압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지도자는 영적 지도 회기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안젤라와 자신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히 위에서 말한 기도의 체험이 펼쳐지기 이전에, 안젤라의 우울증이 너무도 강력하여 지도자 자신도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잠시 잃게 되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대화록을 발표하게 되었다.

Maureen Conroy, *Looking in the Well* (Chicago: Loyola Press, 1995), 108-111. 배정웅, “모델 대화록,” n.p. Online: <http://www.agapechc.org/자료실>.에서 인용하였음.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양금희. “기독교교육적 읽기로서의 Lectio Divina.” *장신논단* 20. (1993): 421-440.

오성춘. “신유의 은사와 영적 치유의 연관성.” *목회와 신학*. 1993년 12월호, 445-466.

\_\_\_\_\_.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이대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정체성의 재형성에 관한 연구.”

*홍성민목사교회기념논문집*. 한민족평화연구소역음. 서울: 도서출판 평화와 선교, 2006, 207-230.

임상필. “북한이탈주민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영적 지도.”

*홍성민목사교회기념논문집*. 한민족평화연구소역음. 서울: 도서출판 평화와 선교, 2006, 231-25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2. 번역서적

Backus, William.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는 자기 고백 워크북 (Learning to Tell Myself the Truth)*. 김재서, 신현경 역. 서울: 예찬사, 1997.

Barry, William A., and William J. Connolly. *영적지도의 실제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김창재, 김선숙 역.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2003.

Berkhof, Louis. *조직신학 하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Boa, Kenneth D.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6.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Downey, Michael.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안성근 역. 서울: 은성, 2001.
-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Grün, Anselm. *아래로부터 영성 (Spiritualität von unten)*. 전현호 역.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1999.
- Ignatius of Loyola. *영신수련 (The Spiritual Exercises)*. 윤양석 역.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0.
- Jones, W. Paul. *영적지도의 이론과 실천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배정웅 역. 서울: 은성, 2005.
- Kaiser, Walter C. *구약성경신학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Macquarrie, John. *영성에의 길 (Paths in Spirituality)*. 장기천 역. 서울: 전광사, 1994.
- Metzger, Bruce M. *신약성서개설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Murray, John. *조직신학1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Nouwen, Henri M. *상처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 Oates, Wayne E.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와 치유 (Behind the Masks)*. 안효선 역. 서울: 에스라서원, 1996.
- Peck, M. Scott.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 Peterson, Eugene H. *균형, 그 조용한 묵회혁명 (Working the angels)*.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_\_\_\_\_. *성공주의 묵회신화들 포기하라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차성구

-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_\_\_\_\_.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6.
- Rice, Howard. *영성목회와 영적지도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 최대형 역. 서울: 은성, 2003.
- Sanford, John A.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Dreams: god's Forgotten Language)*. 정태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_\_\_\_\_. *내 안에 있는 천국 (The Kingdom Within: The Inner Meaning of Jesus' Saying)*. 이기승 역. 서울: 두란노, 1999.
- Savary, Louis M., Patricia H. Berne, and Strepchon Kaplan Williams. *꿈과 영적인 성장 (Dreams and Spiritual Growth)*. 정태기 역. 서울: 예솔, 1993.
- Swihart, Judson J., and Gerald C. Richardson. *위기상담 (Counseling in Time of Crisis)*. 기독교상담시리즈 5. 정태기 역. 서울: 두란노, 1995.
- Wakefield, Gordon S. *기독교영성사전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2.
- Webber, Robert E. *예배의 역사와 신학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 Willard, Dallas.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 \_\_\_\_\_.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 3. 외국서적

- Bakke, Jeannette A. *Holy Invitation*. Dartmouth: Baker Books, 2000.
- Barry, William A. *Spiritual Direction and Encounter with God*. NY: Paulist Press, 200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onroy, Maureen. *Looking in the Well*. Chicago: Loyola Press, 1995.
- Dougherty, Rosemary. *Group Spiritual Direction*. NY: Paulist Press, 1995.
- Edwards, Dennis. *Human Experience of God*. NY: Paulist Press, 1983.
- Egan, Gerald. *The Skilled Helper*. Pacific Grove: Brooks/Cole, 2002.
- Fisher, Kathleen. *Woman at the Well*. NY: Paulist Press, 1988.
- Hart, Thomas N. *The Art of Christian Listening*. NY: Paulist Press, 1980.
- Jung, C. G. *Modern Man in Search a Soul*. NY: Harcourt & Co, 1933.
- Keating, Thomas. *Intimacy with God*. NY: Crossroad Publishing, 1996.
- Leech, Kenneth. *Soul Friend: An Invitation to Spiritual Dire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 Ruffing, Janet K. *Spiritual Direction*. NY: Paulist Press, 2000.
- Willimon, William H. *Worship as Pastoral Ca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 4. 기타

<http://www.agapechc.org/자료실>

Vita of  
Sang Moon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ae Saram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20, 1954  
 Marital Status: Married to Sunhee with two children  
 Home Address: 61-45 Parsons Blvd. Fresh Meadows, NY,  
 11365  
 Denomination: Independence  
 Ordained:

Education:

B. A. Korea University, Seoul, 1982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1999 to present Senior Pastor of Sae Saram Presbyterian  
 Church  
 1997 to 1999 Pastor of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1990 to 1997 Pastor of Taegu Bongsan Presbyterian  
 Church